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Claris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제롬 파월 연방준비은행 의장은 "너무 적은 지원규모는 미세한 회복만 창출할 것이며 각 가정에 불필요한 어려움을 안길 것"이라며 부양책의 조속한 진행을 요구했다

부양책 없는 미 경제 침몰, 생존의 기로

진보보수 경제학자, 트럼프 부양책 협상 중단 뼈아픈 실책 될 것
경제 부양필요했던 시기는 이미 2달 전, 즉각적인 부양안 필요 이구동성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선거를 한달 앞둔 미국은 만연한 실업과 사업체 폐쇄 등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

정치는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부양책 타협에 실패해 실제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7일 미국내 진보, 보수 경제학자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 같은 지원책의 지연은 미 경제에 아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미경제를 지탱하게 만들었던 지난 3월 케어스법 하에 추가실업급여 혜택, PPP,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은 ▶▶8면으로 계속

랍스터 덕에...대한항공 운항 임시중단 없다

대한항공 10월 말 임시 중단 않기로 랍스터 화물 폭증으로 계속 운항 결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대한항공이 보스톤 직항을 비수기인 11월 말에도 계속 운항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에도 미국내 타 도시 경유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은 지난 9월 보스톤 운항을 재개 하면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임시 중단 가능성을 밝혔으며 당초에는 10월 말로 중단할 예정이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은 11월 말 한국행 직항 티켓을 판매하지 않았었다.

대한항공의 보스톤 직항을 계속 이어준 것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줄은 승객이 아닌 랍스터 화물이다.

대한항공 운영 보스톤지점장은 "평소 하루 5-7톤 정도의 랍스터가 운송됐지만 현재는 15-18톤의 랍스터가 한국으로 직송되고 있다. 이 랍스터의 주소버처는 대만과 홍콩 등" 이라고 밝혔다.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 코리아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PREMIER REALTY GROUP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Korea licensed
Mul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CENTURY 21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일린 박
CENTURY 21
REALTOR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김경원 전 한인회장 대통령 표창 수상

세계 한인의날 유공 정부포상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김경원 전 보스톤 한인회(현재 사추세츠 한인회) 회장이 세계한인의날 유공정부포상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외교부가 10월 5일 외교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린 최종 명단에 따르면 김경원 회장은 총 90명의 유공포상자 중의 한명으로 선정됐다. 외교부의 명단에 따르면 김전회장은 커네티컷을 제외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유일한 수상자다.

외교부는 지난 7월20일부터 8월4일까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후보자 명단을 올리며 공개검증을 거쳤으며 최종 8명을 탈락시키고 90명 최종 명단과 훈격을 확정했다.

경경원 전 회장은 미국태권도교육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미주 최초로 태권도를 공교육으로 정립시켰다. 자원봉사로 시작해 2007년 스프링필드와 치코피 등 2개 시에서 태권도를 정규과목으로 채택시켰다. 이후 미국 태권도교육재단을 설립하여 100여개 공립 초등학교에 태권도를 도입시키는 등 공립학교



김경원 전 보스톤 한인회(현재 사추세츠 한인회) 회장

에 태권도를 보급해왔다

1990년 초반부터 10여년 간 미국 태권도 대표팀 코치를 맡아 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훈련시켰고 지난해에는 재미대한골프협회 소속 대표 선수들을 이끌고 전국체전에 참가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공로를 인정받아 재외유공동포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올해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한편,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하기

환 LA한인상공회의소 이사가 수훈한다. 하 이사는 30여년 간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한인회 회장, 코리아타운경찰후원회 이사장, 월서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의장 등을 역임하면서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했다. 1992년 LA 폭동 당시엔 연병의 긴급 보조자금 수역불이 폭동피해 한인들에게 지원되도록 노력했다.

editor@bostonkorea.com



별링턴 소재 뉴장수 갈비(대표 이은규) 레스토랑이 한달 만인 6일부터 정상영업에 들어간다

돌진 차량으로 문닫았던 뉴장수갈비 정상 영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달 11일 돌진차량에 들이받쳐 영업을 중단했던 별링턴 소재 뉴장수 갈비(대표 이은규) 레스토랑이 한달 만인 6일부터 정상영업에 들어간다.

뉴장수갈비의 이은규 대표는 “별링턴 시로부터 모든 인스펙션을 마치고 약 한달여만에 정상 영업에 들어간다” 고 밝혔다.

뉴장수 갈비는 지난달 11일 한시니어가 운전하던 수바루차량이 문옆 유리창 벽을 뚫고 절반이 박히는 사고를 당해 문을 닫았었다.

뉴장수갈비는 260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에 위치해 있으며 전화는 781-272-3787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랩스터 덕에...대한항공 운항 임시중단 없다

▶▶1면에 이어서

대만과 홍콩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로 직항노선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가장 빠른 랩스터의 수입은

직항을 운영하는 대한항공을 통해 한국을 경유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ditor@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보스톤발레 '넛크래커' 온라인으로, 실제공연 내년 5월

안방서 넛크래커 감상, 11월온라인 유료 공연시작
이선우, 이수빈씨 세컨드 솔로이스트로 승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2020년 3월 이후 발레 공연을 모두 연기하거나 취소했던 보스톤발레단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넛크래커를 안방 TV와 컴퓨터 화면을 통해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스톤발레단은 이번 시즌을 3가지 주요 요소로 나눠서 시작한다. 보스톤발레단은 넛크래커 11월 28일 NBC보스톤을 통해 방영하며 NECN과 텔레문도에서 추가로 방영한다. 또한 보스톤발레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2019년 드레스 리허설을 편집해 무료로 상영한다.

이번 안방 방영 및 온라인 방영은 보스톤발레에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더 많은 발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한 보스톤발레단은 사상 처음으로 BB@yourhome 버추얼 시즌을 시작한다. 유료 프로그램인 이

프로그램은 보스톤발레단이 스튜디오에서 새롭게 촬영한 6가지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된다.

무용수들은 9월 21일부터 10명 이하의 그룹으로 연습을 시작했다. 온라인 시즌은 11월 19-29일에 “프로스티 엘레먼트(Forsythe Elements)”,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12월 17일부터 27일까지 넛크래커와 “더 기프트(The Gift)”를 방영한다.

2021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Look Back, Focus Forward” (Jan. 21-31), “Celebrating Jorma Elo” (Feb. 25-March 7), “The Art of Classical Ballet” (March 25-April 4), and “Process & Progress” (April 15-25) 등 4개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보스톤발레는 내년 5월부터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직접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공연들은 중간 휴식시간 없는 단축된 발레 공연이다. 5월 6일에서 16일에는 “오프더차



(위)이선우, (아래)이수빈

트(Off the chart)”를 5월 20일부터 30일까지는 “코레오그래퍼(Choreographer)”를 공연한다.

한편, 보스톤발레는 지난 9월 21일자로 이선우, 이수빈씨 두 무용수를 세컨드솔로이스트(Second Soloist)로 승격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스톤 발레에는 한서혜, 채지영씨가 수석무용수(Principal Dancer)로 활약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넛크래커의 장면들, 맨위 한서혜 수석무용수가 폴 크레이크와 함께 춤추는 모습도 보인다. (사진=Liza Vol, 보스톤발레 제공)

추석엔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행사기간: 9/4(금) ~ 10/4(일)



요즘이니까
면역력
추석이니까
정관장

요즘처럼 면역력이 소중한 때가 없습니다.
추석처럼 정관장이 반기울 때가 없습니다.



영업시간안내
10:30am - 6pm
문자 : 312-493-6677
이메일 : kgcbboston@gmail.com
(문자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추가증정



3+1
자녀제품 1박스 구입시
10포 추가 증정



\$250 이상 구입시
홍삼원골드 1박스 증정



**최고의 홍삼제품으로
가족의 면역력을 지켜주세요!**

원료 관리 단계부터 제조, 제품의 완성 단계까지 8년의 시간동안 290여 가지가 넘는 항목의 안정성 검사를 7회에 걸쳐 시행합니다.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전화로 주문 후 집에서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최광철 민주포럼 대표 디아스포라 평화 공공외교 강연

10월 17일 온라인 줌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회장 한선우)는 최광철 민주포럼 대표를 초청, 10월 17일 온라인 통일 강연회를 개최한다.

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강연회는 “디아스포라 평화 공공외교” 라는 제목으로 10월 17일 오후 8시(미동부시간)에 zoom을 통하여 개최된다. 평통 측은 “K방역, K팝 등 코리안 파워에 세계적으로 이

목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번 강연에 한인들의 관심이 모아질 것” 으로 내다봤다.

KAPAC 대표이자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위원인 최광철 대표는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오클라호마 주립대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마쳤다. 최근에는 미국 의회 하원 외교위원회의 한반도 종전 선언 채택을 이끌었고 한인 사회 모금을 통해 공공기관에 의료 마스크를 지원했다. 또한 북한 의료품 지원 모금으로 7만불을 유니세프에 전달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통일 가치를 미주 동포들에게 심어주고자 활발한 공공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광철 KAPAC 대표 초청 강연회
일시-10월 17일 토요일 오후 8시 (미 동부시간)
주제- 디아스포라 평화 공공외교
Zoom 강연 접속 정보
Zoom Meeting ID: 861 0297 1313
Passcode: Bostonnuac
<https://us02web.zoom.us/j/86102971313>
bostonkorean@hotmail.com



디아스포라 평화 공공외교

일시: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8시 (미 동부시간)
ZOOM ID: 861 0297 1313
Password: Bostonnuac



최광철 KAPAC 대표 및 민주평통 운영위원 약력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 *오클라호마 주립대 경영대학원 MBA
- *민주민주참여포럼 KAPAC 대표
- *민주평통 자문회의 운영위원
- *Bright Light Trading 대표



미국 선거에 대해 한국어로 알려드립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 한인 유권자 가이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KAGC)는 미국내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50개주 유권자 가이드' 온라인 페이지를 만들어 유권자들이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인들은 미주한인유권자연대 (KAGC) 웹 사이트 <https://kagc.us>에 접속해 Election Guide 메뉴를 클릭하면 미전역 50개 주 전체에 대한 유권자 투표 참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영어가 불편한 한인들은 오른쪽 상단의 한글을 누르면 한글로 페이지를 볼 수 있다.

이 안내에서는 유권자 등록 방법, 투표 방법, 2020년 본선거 투표 대상 직책 및 내용, 한국어 지원 여부 등 선거관련 주요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확장되거나 변동된 우편투표 관련 신청 방법 및 투표용지 제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주별로 정리되어 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는 선거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주별로 정리되어 있다. 문의는 홈페이지의 이메일 또는 전화(202-450-4252)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서울장터

SEOUL JANGTEO

서울 유명호텔의 중화요리 Chef 를 초빙하여 뛰어난 맛으로 보답합니다.

깊은맛의 국밥은 오랜 향수를 달래줍니다.

대표메뉴

- 순대국밥
- 돼지고국밥
- 소고기국밥
- 짜장면/짬뽕
- 탕수육/깐풍기
- 양장피/팔보채



151 Brighton Ave. Allston, MA 02134 | (617) 254-2775
(구) 북경 in Allston

하버드 감염병학자, 올 겨울 코로나바이러스 폭증 할 것

코로나바이러스, 겨울되면 시즌맞아 더욱 왕성해질 것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이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를 꺾지 않는 경우 올 겨울에는 “완벽하고 가혹한 폭풍”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하버드 감염병학자가 경고했다.

하버드 감염병리학 교수이자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감염병역학센터의 핵심 회원인 마이클 미나 박사는 겨울철에 감염 “폭증”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나 박사는 트윗을 통해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며 지금 바이러스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완벽하고 가혹한 폭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우리는 현재 겨울철 (호흡기질환)바이러스의 시즌성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나 박사는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가 여름에도 확산세를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이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을철과 겨울철에 더욱 강화되는 바이러스라는 점을 간과하는 잘못된 교훈을 갖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미나 박사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오이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름철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경험하고 ‘시즌을 타지 않는 바이러스’로 잘못 받아들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모든 증거들은 다른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며 “여름철의 확산은 감염력이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 겨울철이 되면 대량 확산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좀더 겨울철을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바이러스

가 가장 약화됐을 시간에 바이러스의 확산의 여지를 주었다”고 아쉬워했다.

내년 1월까지 미국내에서 363,000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한 워싱턴대학(UW)의 보건수량평가연구소(IHME)는 바이러스가 시즌을 타며 11월말과 12월 대량 사망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남반구의 바이러스 경향을 탐구했을 때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남부, 사우스 아프리카 등은 겨울철 인구 이동, 검사, 마스크 착용 수준을 감안했을 때 예상보다 훨씬 큰 감염 확산세를 경험했다.”고 이 연구소는 지난달 밝혔다.

연구소는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율과 시즌성 폐렴과의 강력한 통계적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미국립 감염병 및 알레르기 연구소장 파우치 박사도 “이번 늦가을 겨울철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는 경우 사망자가 30만명에서 4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플루와 코로나바이러스가 겨울철에 가장 극성을 부리는지 여부를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2일 753명 확진자 근래들어 최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2일 연속 700명을 넘어서며 재확산의 우려를 낳고 있다.

매사추세츠 보건부의 2일 발표에 따르면 2일 양성 확진자는 753명으로 지난 5월 25일 이래 최고 수치를 보였다 누적 확진자는 13만1천214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10 명이 발생, 누적 사망자는 9,275명이었다.

특히 10월 들어 양일간 7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1% 이하를 밑돌았던 7일 평균 양성확진자율은 1.1%로 고개를 들었다. 특히 1일 양성확진율은 4.9%로 치솟으면서 2차 감염 확산 가능성을 우려케 만들고 있다

10월 2일 하루동안 총 21,451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주내 누적 검사 횟수는 2백20명에 달한다.

다만 3일 평균 병원 입원환자 수는 439명에서 432명으로 다소 줄었다. 비상 병동을 가동 중인 병원은 3개로 다시 낮아졌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가주 순두부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 밤10시까지

KAJU

Korean Gourmet Food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노동부와 국토부는 6일 전문직 취업비자의 제한을 목표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올해 초 H-1B비자 발급을 12월까지 제한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 발급 대폭 제한

비자 사기 방지가 주요 목표, 실사 강화도 대선 1달 앞두고 실행 가능성 의문, 선거용인 듯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노동부와 국토부는 6일 전문직 취업비자의 제한을 목표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올해 초 해외에서의 H-1B비자 발급을 12월까지 제한한 바 있다.

이 같은 트럼프의 일련의 비자 제한 조치는 미국으로의 합법적인 이민을 막아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초래된 높은 실업을 줄이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CNN는 보도했다.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은 “우리는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이 된 시대에 살고 있다. 간단히 말해 경제 안보가 국토안보다. 이에 대응해 법의 범위 안에서 미국인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유진 스킨리아 노동부 장관은 또

성명서를 통해 노동부는 “(미노동자) 임금보호를 강화하고 비자 사기를 방지하며 저렴한 외국 노동 인력으로 미국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문직 취업비자 규정 변경은 “전문직업(specialty occupation)”의 정의를 좁힘으로서 국토안보부가 작업장 실사를 통한 전문직 취업비자 규정 준수 여부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기존 미 근로자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임금 책정 방법도 개혁할 방침이다.

국토안보부는 신규 규정은 “실존하는 회사가 실존하는 직원들에게 실제적인 고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허점을 보완할 것” 이라며 이번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에 들어갈 것 이라고 밝혔다.

전문직 취업비자 인력을 주로 사용

해 온 주요 하이테크 회사들은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사라 피어스 이면정책연구소 정책 분석가는 전문직비자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심각한 쿼타의 축소는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1B비자로 인한 미 근로자들의 일자리 축소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분명히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전문직 취업비자에 의존하는 회사들에게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 이는 전문직 인력뿐만 아니라 그 인력으로 혜택을 보는 회사와 미 경제까지 영향을 주게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H-1B 전문직비자 프로그램 제한 규정의 실제적 실행 여부도 의문이다. 대선을 1달여 앞둔 상태에 다 지난 수수료 인상처럼 각종 소송으로 인해 실행여부가 불투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대선용 구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버드대 기숙사 매더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3명의 1학년 신입생들이 3명 이상의 다른 친구들을 불러 들어 파티를 벌인 것이 발각돼 집으로 쫓겨났다

하버드 파티벌인 3명 학생 집으로 돌려보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대 학이 매더하우스에 기숙하고 있는 3명의 1학년 신입생들이 3명 이상의 다른 친구들을 불러 들어 파티를 벌인 것이 발각돼 집으로 쫓겨났다.

하버드 크림슨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학생들의 정학은 거주 협약 위반을 위유로 내려진 첫 번째 징계다.

하버드대 대변인 레이첼 데인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이들 징계 학생들의 처분과 징계수위에 대해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다.

크림슨은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캠퍼스에서 집으로 쫓겨난 학생들은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계속할 수 있다. 하버드는 이 학생들에게 살았던 기간 동안만의 기숙 사비를 부과했다.

이 같은 하버드의 징계는 정학 처분을 통해 온라인 수업마저 금

지한 노스이스턴의 징계에 비하면 수위가 가벼운 축에 속한다.

하버드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 중 25%는 학교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는 “사회 협약”에 서명했었다.

대학은 학생 자원봉사자, 교수진, 그리고 교직원들로 구성된 커뮤니티 카운슬을 구성해 협약을 집행하고 위반자들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이 카운슬은 위반의 경중에 따라 위반 없음, 경고, 교육, 기숙사 방출 4개 벌칙 중 하나를 선택한다

하버드 자신 신고 집계에 따르면 아직 하버드의 감염 케이스는 그리 높지 않다. 하버드 크림슨에 따르면 6월 1일 이래 하버드 학생 21,669명 지금까지 9명이 양성확진 판정을 받았다.

hsb@bostonkorea.com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공인 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 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채표 작성
- ▶ 급여(Payroll) 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 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성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B, Woburn, MA 01801

트럼프 코로나지원법안 협상 중단 지시, 주식 폭락

절실한 도움 필요한 미국 경제에 치명타 가할 듯 상승세의 주식시장 급락 불러와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술일 수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측의 협상대표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코로나바이러스 경기부양 법안을 11월 선거 후까지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치료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연속 트윗을 통해 펠로시의 장이 "진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주지사들이 운영하는 주들을 "구제" 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트윗을 통해 "나는 대표단에게 선거 후까지 협상 중단을 지시했다. 내가 승리한 후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과 스물비지니스에 집중할 초대형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특유의 어법으로 발표했다.

그의 이 같은 트윗은 얼마 전 그의 트윗과

완전히 반대된다. 불과 3일전 그는 양당의 지도부가 협상을 마무리해 선거일인 11월 3일 전까지 서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장했었다.

그는 월터리드 군병원에 입원한 다음날 그는 "우리의 위대한 미국은 부양안을 원하고 필요로 하고 있다. 함께 협상해 타결해달라"고 트윗했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통령이 팬데믹으로 경제와 공중보건에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부양안을 거부했다며 즉각 비난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백악관을 "완전한 혼란상태"라고 공격을 퍼부었다.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대통령이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케빈 맥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그리고 스티븐 므누신 장관과 협상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측의 협상 대표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코로나바이러스 경기부양 법안을 11월 선거 후까지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진전상황에 대해 통화한 후 일어났다.

특히 대규모 부양안에 반대하고 있는 맥코넬과 맥카시의 의견이 반영됐으며 또 공화당 의원들이 므누신 장관이 너무 많이 양보한다며 불신을 제기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고 더힐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뒤집으면서 11월 3일 전에 경기부양책을 미국민들에게 전달하기 보다는 선거 승리 후 커다란 지원 법안을 약속하는 것으로 선거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더힐은 그의 이 같은 전략이 아주 위험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수백만명이 실업상태이고 수십만의 사업체들이 폐업위기에 있으며, 이미 경제를 재개한 곳에서도 미국인들은 식당, 극장,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6일 아침 만약 의회가 신속하게 경제 부양책을 내놓지 않는 경

우미 경제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타격은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같은 파월 의장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협상에 임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작스런 트럼프의 협상중단 지시로 인해 주식 시장은 폭락세로 급변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최근 지속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지원법안을 논의해 오던 펠로시 하원의장과 므누신 장관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더힐은 지적했다. 펠로시와 므누신은 협상에 많은 진전을 이뤄가고 있으며 민주당 측이 제안한 것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고 의원들을 알고 있었다.

트럼프의 이번 트윗은 하나의 협상전술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갑자기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던 전례가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언제든지 쉽게 뒤집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hsb@bostonkorea.com



최근 지속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지원법안을 논의해 오던 펠로시 하원의장과 므누신 장관(우)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시에서 민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지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수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경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Michelle Han CPA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부양책 없는 미 경제 침몰, 생존의 기로

▶▶1면에 이어서

거의 모두 소진돼 미국 가정들과 사업체들에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선거 후까지 부양책 협상 중단을 선언한 지금 부양책은 최소한 한 달 또는 내년 1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미 많은 무급휴직은 영구 실업으로 변경됐다. 디즈니와 울스테이트 등과 같은 대형회사들은 새로운 해고를 시작했다. 호텔업계는 수천 호텔의 폐쇄를 경고하고 있으며 수십만 스톱비즈니스들은 사업을 폐업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케팅 플랫폼 웜플리(Womply)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미국내에서 7개업체 중에 1업체가 폐업했으며 총 85만 사업체가 문을 닫았다.

경제학자들은 의회가 즉각적으로 근로자들, 각종 규모의 사업체, 주 및 지방정부에게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념 성향에 따라 지원 규모에 대해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상 모든 경제학자들은 1조달러에서 2조달러 사이의 경기부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중단 선언 후 항공사 지원 및 개인부양수표 등 각개 지원책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스티븐 브누신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7일 두차례 항공사 단독지원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펠로시 의장은

단독안을 거부했다. 이 같은 제한적 단독 법안들은 경제학자들이 제안한 수치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거나 통과 전망도 불투명하다.

캐런 다이낸 하버드 경제학자이자 오바마 행정부 재무부 관료는 “부양책 지연은 (미 경제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에 둘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한다. 조만간 임계점에 달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글렌 허버드 컬럼비아대 교수가 자 조지 부시 대통령시절 경제자문위원장은 즉각적인 개인 사업체 그리고 지방정부를 돕는데 1조달러가 필요하다며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심각한 경제적 후유증에 시달릴 것” 이라고 지적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7일 정부가 대형 지원책을 사용해야 하며 적절한 지원이 없이는 경제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너무 적은 지원규모는 미세한 회복만 창출할 것이며 각 가정에 불필요한 어려움을 안길 것” 이라는 그는 “시간이 지나며 가게 부채, 사업체 도산이 증가하며 경제의 생산성에도 타격을 가하게 된다” 고 말했다.

세계에서도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부양책 없이는 거의 모든 산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다. 애플, 월마트 등 미 대기업 대표들의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6일 “미국내 전역은 (경제) 하향 곡선 직전에 놓



약 1백60만명의 호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있으며 3만8천 호텔이 문을 닫게 될 상황이다

여 있으며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체육관, 살롱 등의 프랜차이즈 소유주들을 대표하는 워싱턴 소재 국제프랜차이즈협회 매튜 홀러대 정부 및 공공관계 수석 부사장은 부양책이 없는 경우 올 겨울 3만 6천 프랜차이즈사업체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직 근로자들도 점차 큰 압력을 받고 있다. 에머코어 ISI의 경제학자 에니 테데스키 씨는 실업급여를 통해 저축했던 실업자들은 이번 달 정도면 저축액이 바닥날 것이며 집세 납부와 식료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부양안이 없는 경우 미 경

제는 내년 말 부양안이 예정대로 진행됐던 것보다 4백만이나 더 일 자리를 잃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미 정가의 협상 교착상태는 지난 3월달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당시 의회는 재빠르게 부양안을 마련했으며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다. 가계는 다시 소비를 시작했고 회사들은 재고용했다. 15%에 달하던 실업률은 7.9%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여름으로 종료됐으며 최근들어 경제적 회복이 느려지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부양안이 늦어질수록 이 같은 모멘텀의 하락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방준비은행은 9월 추가 부양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7일 “부양안이 없는 경우 4분기 경제 하락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나타날 것” 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경기부양안의 규모와 범위를 놓고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규모는 중요하지 않으며 얼마나 빨리 어느 분야에 지원되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제이슨 퍼맨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장은 “언제 돈이 필요하냐? 답은 2달 전이었다” 라고 지적했다.

hsb@bostonkorea.com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mw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요가송의5분요가

유튜브 검색창에  YOGA SONG HAYEON

라운드숄더(굽은어깨)를 위한 요가스트레칭

‘굽은등’, ‘라운드숄더’, ‘거북목’ 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서,

‘어, 저거 내 얘기인데?’ 하는 분들은 반드시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 (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등이 굽었다, 어깨 좀 펴라.. 등의 지적을 많이 받곤 했는데요, 그땐 잔소리같이 흘려들었던 말을 지금 제 학생들과 또 제 아이들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 . 평소 바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가 쉽지 않음을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잔소리에서만 그치지 않도록 어떻게 자세를 고치고 지금부터 바른 습관을 들일 수 있는지 친절하고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9min Healing Yoga stretches for Rounded Shoulders /라운드숄더 교정에 좋은 요가를 찾아 보시면 오늘 알려드릴 자세 외에도 간단하고 쉽게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 검색창, YOGA SONG-HAYEON 을 검색,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요가 필라테스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첫번째로 배울 동작은 Hands To Back입니다.

STEP 1 : 앉은 자세에서 두 손을 주먹 쥐어 등뒤로 가져갑니다.

STEP 2 : 두 주먹이 서로 등뒤에서 만났다면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좀 더 위로 올려봅니다.

POINT! :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복부와 갈비뼈를 등쪽으로 끌어당긴 상태에서 가슴을 활짝 펴주세요.

STEP 3 : 뒤의 견갑골 두개가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깊게 호흡하며 5회 반복 후, 천천히 손을 풀고 휴식합니다.



두번째는 Hands to Sky 입니다.

*첫번째 동작에서 워밍업이 충분히 된 후, 진행합니다.

STEP 1 : 손을 뒤에서 깎지키고 천천히 상체

를 앞으로 보내며 손을 천정쪽으로 보냅니다.

STEP 2 : 날개뼈를 서로 조인상태로 손을 올려 길게 3-5호흡해주세요.

POINT! : 목의 긴장을 풀고 진행해주세요. 이마가 바닥에 닿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자주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어깨가 열리고 좀 더 가볍게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세번째 자세는 Bow Pose 변형입니다.

STEP 1 : 네발기 자세에서 오른발을 옆으로 보내고 왼다리를 뒤로 뻗어줍니다.

STEP 2 : 천천히 왼다리를 접어 왼손으로 발을 잡고 가슴을 열어주세요.

POINT! : 배를 등쪽으로 당겨 허리를 보호한 상태에서 상체가 시원하게 열릴 수 있도록 스트레칭해줍니다.

STEP 3 : 시선은 바닥, 옆 혹은 천정위다 상관 없습니다. 목이 편한 자리에 두시고 길게 3-5호

흡 진행해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더 많은 동작이 궁금하다면.

앞서 소개해드린대로 Rounded Shoulder? 9분 라운드숄더 교정 스트레치 영상 보시며 매일 따라해주시면, 컴퓨터작업, 혹은 부엌가사 일 등으로 굽어진 내 어깨가 조금씩 열려, 처음엔 딱딱했던 어깨가 매일 1주만해도 훨씬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굽은등, 말린 어깨에서 졸업하는 그날까지 요가송은 더 열심히 칼럼과 유튜브영상을 나눌게요. 가슴 짹펴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Yoga-fulness Life) 대표

유튜브 검색창에 'YOGASONG-HAYEON'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Janice & Lisa

지식과 경험,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와 드립니다

제니스 리

978.806.6023

JLee@OwnNewEngland.com

리사 리

857.294.9760

LLee@OwnNewEngland.com

주택 / 건물 / 투자, 원하시는 매물 확실히 찾아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Janice & Lisa Team

COMPASS



Our mission is to help everyone
find their place in the world.



Why Compass 왜 컴파스인가?

- 부동산 서비스와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프롭테크(PropTech) 기업
부동산(property) + 기술(technology) = 컴파스 (Compass)
- 부동산 구매자와 에이전트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매물 검색과 개인화된 매물추천,
부동산 거래 관련 상호 커뮤니케이션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통합 부동산 플랫폼 제공
-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5000억원 투자한 회사
- 저스틴 월슨 비전펀드 선임 투자전문가 “컴파스는 주택 구매자와 중개업자를
연결해주는 차별화된 기술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 이 분야에서 입지가 탄탄한 기업”
- 2019년 판매량 기준 보스턴 및 케임브리지 1위 (Source: MLS)
- 750+ Agents in Greater Boston
- Operates in 20 U.S. markets including New York, Philadelphia, Boston,
LA, Chicago, Washington D.C., Dallas, etc.

Agent Introduction 에이전트 소개

안녕하세요, 제이슨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미국 최고의 부동산 회사인 컴파스와
함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부동산 토탈 서비스를 가지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컴파스에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과 최고의 정보기술과 함께,
헌신 (dedication), 믿음 (Trust), 결단력 (Determination) 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거래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mpass 와 함께 차원이 다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슨 드림



Jason Jeon 제이슨 전
Realtor®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Compass Services

Compass Concierge 컴파스 컨시어지

컴파스 컨시어지는 셀러에게 무이자로 주택 개선 비용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페인트, 바닥, 스테이징 등
집 리모델링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가치를 최대한 올려 더 빠르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Compass Coming Soon 컴파스커밍순

compass.com 에 부동산을 시장에 출시 될 예정임을
사전에 광고하여, 사이트를 검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Compass Bridge Loan Services 컴파스 브릿지론

컴파스 브릿지론은 최대 6개월의 브릿지대출의 대출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브릿지 대출 기관인 Freedom Mortgage, Better.com 의
경쟁력있는 이자율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모기지 연체 비율 높아졌다 전체의 6.8%, 7510억달러 규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 6주 연속 감소하던 모기지 페이먼트 유예 비율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통계분석기업 블랙나이트(Black Knight)의 최근 집계 결과 지난주(9월 29일 마감 기준) 모기지 유예 비율이 전주 대비 2만 1000건 증가하며 6주간 이어오던 감소세를 마감했다.

이로써 미국의 모기지 유예 비율은 약 360만건으로 전체 모기지의 약 6.8%를 차지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7510억달러에 달한다. 단 이번 집계는 전월(8월 25일 기준, 전체 7.4%에 해당하는 390만건) 대비로는 0.6%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모기지 업체 관계자들은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침체가 여전하고 실업률도 높게 유지되고 있다. 특히 9월말로 만료 예정인 유예 케이스가 80만건을 넘고 10월과 11월에도 유사한 수의 유예 기간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일 이들 케이스가 연장에 실패한다면 차압건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국책 모기지 기관인 페니매와 프레디맥의 대출 유예비율이 4.7%로, FHA나 군인대출의 11.2%와 일반 금융기관 모기지의 7.3%를 크게 밑돌았다.

hsb@bostonkorea.com

일반인이 트럼프 같은 치료받으면 1억원 훌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군 병원에 사흘 동안 입원하고, 이동할 때는 헬기로. 여러 차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와 산소 보충 치료, 스테로이드제 복용, 실험 단계인 항체 치료까지 비용은 얼마나 될까.

“코로나19를 두려워말라”고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적용된 각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비용을 뉴욕타임스는 7일 일반인이 치료받았을 때 비용을 뉴욕타임스(NYT)가 7일 추산했다.

뉴욕타임스는 대통령이 아닌 평범한 미국인이 미국의 의료 체계에서 이런 의료적 혜택을 누리려면 10만달러가 넘게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보험 청구 데이터베이스 '페어헬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60세 이상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및 치료 비용의 중간값은 6만1천912달러에 이른다. 입원비 외에 응급실 진료비, 병원에서 처방하는 각종 약값 등이 모두 포함된 비용이

다. 보험 가입자라면 이런 비용을 3만1천575달러까지 낮출 수 있지만, 비보험 환자는 입원·치료비를 전액 지불해야 한다.

특히 장기간 입원하는 상위 25%의 환자가 내는 각종 비용은 무려 19만3천149달러까지 치솟는다고 NYT가 지적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의료적 처우를 받는다면 응급 헬기 탑승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

미국에서 '에어 앰블런스' 비용의 중간값은 3만8천770달러로, 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2만1천698달러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왕복으로 탑승하려면 4만달러 이상이 나온다는 이야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복용한 구체적인 치료제 가격을 따로 계산해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나온다.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는 민간 의료 보험 가입자의 경우 3천120달러가 든다.

리제네론이 개발한 항체 치료

제는 아직 임상시험 단계여서 가격이 책정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종류의 단일 클론 항체치료제 가격이 수천달러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 미국인들에게 또 두려운 것은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이다.

미국의 보험사는 의사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처방하는 경우에만 진단검사 비용을 보전한다. 직장 내 필요 등 다른 이유로 검사를 받으려면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뜻이다. 단 매사추세츠의 경우 고위험 타운에 설치된 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통상 미국의 코로나19 검사비는 100달러이지만, 텍사스주의 한 드라이브루 검사장에서는 비보험자에게 6천408달러까지 청구한 사례가 있다고 NYT가 전했다.

*이 기사는 연합뉴스의 기사를 바탕으로 재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음대로 골라본다 \$24⁹⁹

WIFI 내장 Compact size Setup Box \$66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볼로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⁹⁹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34⁹⁹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39⁹⁹

*전상품 1년 일정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유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케임브리지한인교회

(35 Magazine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251-9611)
교회 홈페이지: www.firstkoreanchurch.org
Facebook: 케임브리지한인교회- First Korean Church in Cambridge
Instagram: 케임브리지한인교회- First Korean Church in Cambridge
*Online Worship (주말 오전 11시): YouTube 'FKCC Media Ministry'
(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한인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 사역에 가치를 두고 40여년을 한결같이 청년 (유학생) 사역에 힘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엠 'FKCC'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궁금한 것은 위 전화나 교회 이메일 info@firstkoreanchurch.org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미 전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다시 확산하는 코로나바이러스 위스콘신주는 아전병원 열기로

몬태나 등 미국내 전역서 입원환자 증가 시작... 하루 신규환자 4만4천명으로 8월후 최고치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미국 위스콘신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급증하자 아전병원을 열기로 하는 등 미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재확산하고 있다.

CNN 방송에 따르면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는 7일(현지시간) 코로나19 입원 환자 급증에 따라 아전병원을 개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이날 신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41명으로 최고 기록을 세웠다.

에버스 주지사는 "우리는 분명히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불행히도 오늘 위스콘신주는 훨씬

절박한 지점에 있고 우리의 의료 보장 체계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고 말했다.

다른 주에서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들이 나온다.

유타주 스펜서 콕스 부주지사는 트위터에 "입원 환자가 치솟으면서 의료 체계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 특히 인력이 그렇다"면서 "유타주도 (위스콘신주보다) 감염 비율에서 크게 뒤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위스콘신주의 발표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경고장이 돼야 한다"고 썼다.

몬태나·네브래스카·노스다코타·오클라호마·사우스다코타·와이오밍주에서도 최근 입원 환자가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트래킹 프로젝트'에 따르면 미 전역의 입원 환자 수도 최근 상승하기 시작했다.

CNN은 또 미 존스홉킨스대학 통계를 인용해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4만4천명을 넘기면서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중서부와 북동부를 중심으로 25개 주에서 최근 1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 수가 그 전주와 견줘 증가했고, 감소한 곳은 앨라배마·하와이주 등 2곳뿐이었다.

독감철인 가을·겨울로 접어들면서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형국이다

이런 재확산에 맞서 주지사·시장 등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마스크 미착용 단속 강화를 주문했던 앤디 베서 센터기 주지사는 추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30일 연장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새스타카운티는 한 복음주의교과 대학에서 160명이 넘는 학생·교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경제 재기동 계획을 후퇴시켜 술집 등 비(非)필수 실내 영업장의 영업을 중단시켰다.

이런 규제 강화에 대한 반발도 일고 있다. 코로나19 집단발병 지역이

나타나자 학교와 필수 사업장·점포를 문 닫게 하고 종교시설에서의 모임을 10명 이내로 제한한 뉴욕주에서는 정통과 유대교 교인들이 뉴욕 시 브루클린에서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이고 이를 연속으로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지 않았다.

존스홉킨스대는 이날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75만173명, 사망자 수를 2만2천237명으로 각각 집계했다.

sisyphe@yna.co.kr

트럼프 "경기부양협상 재개"

(워싱턴=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민주당과 경기부양책 협상을 재개했다면서 생산적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팀에 부양책 협상을 대신 이후까지 중단하라고 6일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이틀 전에는 대화가 잘 풀리지 않아 중단했지만 재개했다면서 "우리는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돌아왔고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며 "우리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 안건과 관련, "우리는 항공사에 대해 논의하고 있

고 항공사보다 더 큰 합의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며 항공산업 지원을 포함해 국민 1인당 1천200달러 지급과 다른 것들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중단을 지시한 뒤 증시가 급락하고 공화당 지지자들조차 반발하자 트윗을 통해 의회가 항공산업 지원책을 승인해야 하며 자신은 전 국민 1천200달러 지급 방안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물러선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된다면 두 달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바이든 후보에게 밀린다는 각종 여론조사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 여론조사들을 믿지 않는다"며 여론조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신신마트 당일배송

신신 가을 이벤트
오뚜기 설령탕 혹은 사골곰탕
1 FREE \$150.00 or more
2 FREE \$250.00
3 FREE \$350.00 or more

배달 서비스

EXPRESS DELIVERY

각종 고기와 반찬, 쌀, 라면, 야채, 과자 뿐만 아니라 신선한 생선회(Mr. Sushi) 등을 1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당일 배송해 드립니다.
\$100불 이상 / 배송비 10불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Free Delivery 해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에 정직합니다
정성들여 만든 신신 스페셜

얼큰한 해물 짬뽕국물 (\$7.99)
순두부 (\$7.99)
육개장 (\$9.99)
싱싱한 홈메이드 신신만두 (\$25.00)
(고기만두, 김치만두)

ALL 유기농 늘푸른 농장

한국포도 \$19.99/pack, \$36.00/box
메주콩, 검정콩 \$29.99/5LB
배즙, 포도즙, 대추즙 \$29.99/25packs
마른대추 \$29.99/1bag
고춧가루 \$69.99/3.8LB

신신마트) 978.686.0813 (매장)
781.308.2073 (줄리 안), 781.308.2072 (다니엘 안)

케이atering 문의
한식, 일식, 중식 케이atering (보스톤 4성급 호텔에 납품하는 허가된 등록업체입니다)
문의 781.308.2073 (줄리 안)



캘리포니아주, 디즈니랜드 폐쇄

개빈 뉴섬 주지사 "재개장 서두르지 않을 것"...디즈니 '수용 불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운섭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 디즈니랜드 재개장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디즈니랜드 폐쇄를 유지하겠다고 하자 디즈니랜드 운영사인 월트디즈니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강력히 반발했다고 8일 미 연예매체 데드라인 등이 보도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기 전에는 대형 놀이공원의 문을 다시 열 수 없다면서 '테마파크 재개장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내놓

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우리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계를 따를 것이고, 이를 고수할 것"이라며 "그것이 주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디즈니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패멀라 하이델 디즈니 최고의로 관리자(CMO)는 성명에서 "디즈니랜드 재개장이 '건강 우선' 접근법에 배치된다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의견을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디즈니의 보건 역량은 입증 이 됐고, 우리가 운영하는 전 세계의

다른 놀이 공원들은 문을 다시 여는 것이 허락됐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놀이공원 협회도 성명을 내고 '테마파크 재개장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주지사의 접근법이 많은 기업과 직원들의 생계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디즈니는 지난 3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테마파크 가동을 중단했으나 코로나 봉쇄령이 풀리면서 현재 입장객 수 제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적용해 디즈니랜드를 제외한 놀이공원 대부분을 재개장했다.

jamin74@yna.co.kr



아마존, 배송용 전기승합차 공개 2022년부터 실전 투입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8일(현지시간) 배송용 전기승합차를 공개했다고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이 전기승합차는 아마존이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 오토모티브'와 협업해 개발한 것으로, 2022년부터 실전에 투입돼 도로를 운행하게 된다.

이번에 공개된 전기승합차는 아마존이 투자한 3개 모델 중 하나로, 최첨단 센서 감지 장치와 고속도로 어시스트 기술, 360도 전방위 시야를 제공하는 외부 카메라 등의 안전 기능을 갖췄다.

또 아마존의 인공지능(AI) 비서 '알렉사'도 탑재했다.

아마존은 이르면 2022년 전 세계에 배송용 전기승합차 1만대를 투입하고 2030년까지는 10만대

규모의 전기승합차를 배치할 예정이다.

아마존은 지난해 9월 회사의 장기 기후변화 대응 비전인 '기후 서약'을 발표하며 그 한 갈래로 리비안으로부터 전기승합차 10만대를 구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마존은 기후 서약에서 203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2040년까지는 탄소 중립(배출한 양만큼의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마존은 올해 8월 독일 완성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에 전기승합차 1천800여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sisyphe@yna.co.kr

MASS-Drain
DRAIN & PLUMBING

막힌 곳을 **확** 뚫어드립니다

부엌, 목욕탕 리모델링 전문
WATER HEATER, BOILER
HEATING, FAUCET

www.massdrain.com | massdrain@gmail.com
617.645.6146

보스톤코리아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중단치 않고 발행합니다. 두꺼운 얼음 밑에서 물은 끊임없이 흐르듯 모든 게 멈춘 순간에도 끊임없이 필수 정보를 전하고 한민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광고주들로 인해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 여러분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혹 여유가 되는 분들은 보스톤코리아를 도와주세요.

보스톤코리아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체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Payable to : The Boston Korea

보스톤코리아도 어려운 광고주들을 돕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editor@bostonkorea.com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제추출 중단 법안 만료에 대비하기

COVID-19의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Massachusetts 주의회는 주내의 모든 건물주(landlord)들에 대해 강제추출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를 중단하는 법안(Moratorium on Evictions)을 통과시켰고 베이커 주 행정부는 현재 이를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퇴거중단 조치는 거주 목적과 상업 목적의 임대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제추출중단 조치는 오는 10월17일로 만료됩니다. 아직 이번 팬데믹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조치의 연장을 고려하겠지만 주내 건물주들로 부터의 엄청난 압박도 무시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미 몇몇 건물주들은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연장되면 좋겠지만 계획대로 오는 10월17일에 만료가 된다면 곧 많은 강제추출 절차들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assachusetts는 친세입자(거주목적) 주이기 때문에 이번 팬데믹이 어느 정도 퇴거절차에 영향을 주겠지만 상업 목적의 임차인들은 미리미리 대비를 하

야 할 것입니다.

렌트비 미납금(Back Rent)

먼저, 이번 강제추출 중단은 말 그대로 추출에 대한 중단입니다. 밀린 월세에 대한 변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유야 어찌됐든 지금까지 내지 못한 월세는 그대로 빛으로 남게 됩니다. 이를 렌트비 미납금(back rent)이라 합니다. 이 back rent는 자진 퇴거든 강제 퇴거든 퇴거가 된다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계속 책임으로 남게 됩니다.

Back rent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건물주와 소통과 협상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주들은(심지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소통과 협상을 달가와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건물주 입장에서는 한푼도 빠지 않고 받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back rent를 완전히 변제해주는 건물주는 드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건물주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완전변제 보다는 부분적 변제 또는 지불시기를 계속 연장하는 쪽이 건물주를 설득할 가능성이 큼니다. 물론, 이러한 협상도 세입자의 지불능

력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bank rent의 변제를 해주는 대신 임대차 기간을 몇년 더 연장을 조건으로 내거는 건물주들이 있습니다. 당장 빛을 변제해주니 좋긴 하지만 선불리 여기에 동의했다간 빛을 더 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출조치

월세를 내지 못한 이유로 시작되는 강제추출조치는 이번과 같은 중단 조치 말고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월세를 안 낸것 자체가 계약위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제추출조치는 법이 정한 규정과 절차를 지켜야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주는 추출을 위해 세입자에게 적어도 30일의 준비기간을 줘야 하며 이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추출이 요청되고 30일이내에 퇴거하라나 30일안에 퇴거하지 않으면 추출조치를 시작하겠다는 통지서가 제대로 세입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또다른 30일이 주어집니다.

건물주는 추출이 되도 세입자의 back rent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현재 지불능력이 없다면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에 대한 압류를 시도할 것입니다. 압류는 현재 세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의 건물내 재산 뿐만 아니라 개인 재산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개인이름으로 한 경우나 co-sign을 개인이름으로 한 경우) 또한,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은 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재산과 남겨놔야 할 재산들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추출 조치에 대한 통지를 받으시면 이러한 재산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추출조치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밀린 월세, 건물에 대한 피해 여부 등 금전적 책임도 결정합니다.

실사 추출이 확정되도 이러한 책임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즉, 정확하게 밀린 월세가 얼마인지, 건물에 피해를 준 것이 어떤 것들인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고의든 실수든 낸 월세도 안낸 것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건물주의 요구가 정확한지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파산(Bankrupt)

흔히 '파산'이란 단어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의미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즉,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파산은 파산 신청자의 빛을 탕감해 줌으로서 신청자가 새롭게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세입자의 파산입니다. Back rent를 나중에라도 받아낼 수 없고 압류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때에 따라선 건물주와의 협상에서 파산신청이 좋은 협상도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신청을 협상도구로 쓰는 경우는 먼저 본인의 파산신청 가능성을 확인하고 하셔야 합니다. 파산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격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선불리 파산을 협상도구로 썼다가 오히려 건물주와 관계만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두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OCT. 9th - OCT. 15th, 2020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Hmart_ma

COLUMBUS DAY BARBEQUE FESTIVAL

콜럼버스데이 바베큐도 H 마트와 함께 하세요. Columbus discovered America, you discover the savings. Fall BBQ specials are waiting.



H 마트와 함께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몸의 거리는 넓히고, 마음의 거리는 좁혀야 할 시간. H 마트 고객분들과 직원분들의 안전을 위해 6피트 안전 거리를 확보해주세요!
 Join the H Mart Social Distancing Campaign, to help slow down the spread of COVID-19 for you and our H Mart family. Keeping 6 feet apart will bring us together again.

<p>Clementine 클레멘타인 3 LB BAG \$4.99</p>	<p>Hass Avocado 하스 아보카도 EA. \$0.99</p>	<p>King Oyster Mushroom 한국산 새송이 버섯 PRODUCT OF KOREA 2\$5 10.58 OZ. / PKG.</p>	<p>White Cabbage 화이트 양배추 LB \$0.79</p>	<p>Fuji Apple 후지사과 PREMIUM QUALITY VAR. \$1.49</p>
<p>Oriental Sweet Potato 크리모 고구마 LB \$1.99</p>	<p>Enoki Mushroom 한국산 팽이버섯 PRODUCT OF KOREA 2\$3 7.05 OZ. / PKG.</p>	<p>VEGE QUEEN Dried Persimmon 곶감 1 LB./PKG. \$6.99</p>	<p>Idaho Potato 아이다호 감자 LB \$0.79</p>	<p>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3종 SOFT/SMOULDER/14-10Z \$1.29 / PKG.</p>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Fresh Beef Tenderloin 생 소리심 WHOLE PIECE/ LB \$7.99</p>	<p>Fresh Beef Eye Round Chunk 생 홍두깨 (장조림용) LB \$7.99</p>
<p>Fresh Beef Tenderloin 바베큐용 생삼겹살 LB \$7.99</p>	<p>Fresh Boneless Chicken Thigh 뼈없는 생 닭사슴 LB \$1.99</p>
<p>Frozen Cornish Hen 냉동 영계 LB \$2.49</p>	<p>Marinated Sliced Pork CT Butt 양념 돼지육살 LB \$4.99</p>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Head-on Frozen Patagonian Pink Shrimp 머리있는 자연산 냉동 홍새우 10 - 20'S/LB \$6.99</p>	<p>Frozen Spanish Octopus 스페인산 냉동 문어 LB \$7.99</p>
<p>Frozen Norwegian Mackerel 냉동 노르웨이 고등어 40S - 60S/LB \$1.99</p>	<p>Frozen Chilean Seabass Steak 냉동 칠리안 시메스 스테이크 LB \$19.99</p>
<p>TONGTONGBAY Frozen Cooked Shrimp 동동대 냉동 곡새우 26 - 30'S/LB \$10.99</p>	<p>Fresh Salmon Steak 생 연어 스테이크 LB \$6.99</p>

SMART CARD MEMBER ONLY

<p>KYONG GI Medium Grain Rice 경기미 쌀살 NEW CROP/40 LB \$29.99</p>	<p>KWANCHUN Premium Green Tea Seaweed 광천 녹차김 선물세트 ORIGINAL/GREEN LAYER 0.71 OZ. X 10 EA./BOX \$9.99</p>
<p>YODONG Canned Bai Top Shell 유동 골뱅이 통조림 14.1 OZ. \$6.99</p>	<p>BOHAE Maewon Prime 보혜 매원 프라임 PLUM EXTRACT/ 500 mL \$7.99</p>

<p>HARU HARU Medium Grain Rice 하루하루 마이 햅쌀 NEW CROP/15 LB \$13.99</p>	<p>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56 FL.OZ. \$14.99</p>	<p>GONPYO Wheat Flour 곰포 밀가루 5.5 LB \$3.99</p>	<p>CJ Dasida Soup Stock CJ 다시다 쇠고기 BEEF FLAVOR 2.2 LB \$10.99</p>	<p>HAIJOREUM Somen 해오름 막국수 KOREAN STYLE NOODLES/ 5 LB \$4.99</p>
<p>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16.9 FL.OZ. X 6 EA./BOX \$9.99</p>	<p>HAID Yellow Croaker 해오름 황금굴비 2.5 LB \$13.99</p>	<p>HAID U-dong 해오름 우동 JAPANESE STYLE NOODLES/ 2.75 LB(8.81 OZ. X 5 PCS/PKG.) \$2.99</p>	<p>CALBEE Fruita Fruit & Granola 칼비 후루그라 17 OZ. \$5.99</p>	<p>HAITAI Ace Cracker 해태 에이스 12.84 OZ. \$2.99</p>
<p>SAMYOOK FOODS Black Bean Calcium Soy Milk 삼육 검은콩 칼슘 두유 195 mL X 24 EA./BOX \$15.99</p>	<p>DONGSUH Maxim Instant Coffee 동서 맥심 커피믹스 ORIGINAL/MOCHA GOLD MILD 100 CNT /PKG. \$12.99</p>	<p>Kid's Mat 키즈매트 CITY/RING RING DESIGN/ 1700 MM X 1400 MM/EA. \$99.99 \$74.99</p>	<p>Melamine Tray 멜라민 정반(대나무) BAMBOO/M - 39.5 CM X 28.5 CM/ L - 45 X 31 CM/EA. \$4.49-\$5.99 \$2.99-\$3.99</p>	<p>HELLO HOME Disposable Wooden Chopsticks 헬로홈 일회용 나무젓가락 80 PAIRS /PKG. \$1.49</p>

JINGA
한국에서 사랑받고 해외로 수출, 위생적이고 맛있는 한국산 죽
'진가 한국산 죽'
"JINGA Korean Porridge"
 A quick, easy meal or snack. Made with a secret Korean recipe with ingredients from Korea.

CUSTOMER SERVICE
1.627.427.1366 Customer_center@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akes/omission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한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info@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사장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부사장 수잔 안
339.224.1512
 susan@bostonpremierrealty.com

OUR AGENTS



이제봉

781.654.5281

jblee@bostonpremierrealty.com



애나 정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성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 Chopra@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ng@bostonpremierrealty.com



최은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김원태

617.620.8242

otk212@gmail.com



재키형

617.795.6171

jacki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Eunsuk Song

413.313.4165

kathysong2019@gmail.com



주승원

617.780.783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최승진

978.866.3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레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FEATURED LISTINGS



● 세탁소 매매

보스톤남쪽, 타운센터에 위치한 Full Plant, 안정된 고객과 매상, 소유주 은퇴, 하이드로카본.

Asking \$300,000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 시트에 위치, 메인스트리트 선상, 주요 체인점들 주변, 5 Units 리테일 스토어 식당, 세탁소, 이발소 테넌트

Asking \$825,000

LISTINGS



● 세탁소 건물 + 비즈니스

현재 영업중인 Full Plant 세탁소 건물, Watertown 재개발 상권(호텔, 콘도, 쇼핑몰, 콘도, 연구실...)과 레지덴셜이 맞물린 위치, 파킹 5 가능

Asking \$999,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남쪽에 위치(Norwell) 영업중인 Drycleaner 드롭 오프 & 얼트레이션 오랜기간 운영으로 꾸준한 단골이 많음

Asking \$53,000



● 세탁소 매매

안정적인 매상, 두터운 고객층, 보스톤 북부에 위치한 Full Plant

연매상 \$250,000

Asking \$189,000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에 위치, 1층 식당, Property 텍스 저렴 2&3층 Residential 아파트, 월 렌트 인컴 \$5,500

Asking \$599,500 Price Reduced



● 네일샵 매매

T 스테이션에 가까운 위치, 연매상 80만불이상 철저한 고객관리로 안정된 인컴, 전용주차장

Asking \$380,000



● 세탁소 매매

Full Plant, 보스톤 북동쪽 타운 확보된 단골고객들 리뷰&매상 좋은 세탁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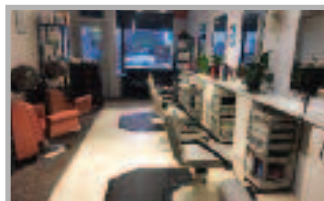
Asking \$200,000



● 세탁소 매매

보스톤 북쪽 타운, Full Plant 확보된 안정된 고객층

Asking \$120,000 NEW



● Lexington Hair Salon

Lexington 사업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헤어사롱, 26년 주인이 직접 운영해서 단골 손님이 많음.

Asking \$40,000 Price Reduced



● Westford Nail salon

단골 손님이 많고 매상이 계속오르는 네일사롱 Manicure 6, Pedicure 6

Asking \$170,000



● 세탁소 매매

교통 좋은 위치, 보스톤 북쪽 30분 거리 Full Plant + 새 프레스 기계

Asking 문의 바람 급매



● 네일샵 매매

높은 매상과 안정된 고객층 고급스런 인테리어 최상의 비즈니스 투자

Asking \$320,000



● 커피샵 매매

보스톤 북쪽 타운, 연매상 20만불 이상 확보된 단골 고객, 부담없는 렌트비 1200 sq.ft.

Asking only \$90,000 Price Reduced



● Waltham Flower shop

오너가 20년을 운영, Main St 에 위치, 꾸준하게 잘 되는 비즈니스, 단골 손님을 많이 확보

Asking \$100,000



● 드랍오프 세탁소

30년간 영업중인 드랍 오프 세탁소 매매, 안정된 고객과 수익, 주인 은퇴, 좋은 위치, Marblehead, MA 1700 SF.

Asking \$50,000



● 미용실(hair Salon)

잘 꾸며진 영업중인 미용실 매매, 1200 SF, 안정된 고객과 수익, Lexington Lots of parking

Asking \$80,000 Price Reduced

의료원장들 '대리사과'에도...시험보는 의대생 정작 '묵묵부답'

본과 4학년생들 "국시 응시하겠다" 의사표현 후 사과 · 양해 없어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주요 대학병원장이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의 국가고시 응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그러나 여전히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정부 역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재응시 기회를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라서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 주요 대학병원장 고개 숙여... "선배들을 질책해달라"

김영훈 고려대학교의료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에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힌 뒤 고개를 숙였다.

이 자리에는 김 의료원장과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국립대학병원협회 회장), 윤동섭 연세대학교 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학교의료원장(사립대학교의료원협회 회

장)이 함께했다.

그는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의료공백이 우려된다며 의대생들이 국시를 재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료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엄중한 시점에서 당장 2천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심각한 의료공백"이라며 "의료의 질 저하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또 선배로서 지금도 환자 곁을 지키고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질책은 선배들에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6년 이상 학업에 전념하고 잘 준비한 의대생들이 미래 의사로서 태어나 국민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고시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국시가 정상화되면 이번 의대생들은 이전과 다른,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의사로

태어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렇게 발표한 이후 별다른 질의응답 시간은 갖지 않았다.

◇ "의대생들은 죄가 없다" vs "국민 공감과 동의 선행돼야"

병원장 4명은 발표 직후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의대생의 의사 국시 재응시 문제를 논의했다.

김 의료원장은 간담회 시작 전 모 두 발언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중 의료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던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학생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국시 기회를 완전히 차버리게 된 건데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닌 2천700명 의사가 배출되지 못하는 국가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료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국민들이 아무리 과심하게 보셨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병원장들은 몇백번 큰절이라도 하려면 하겠다. 의대생들은 죄가 없으므로 선배들을 채찍질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공백이 장기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료원장은 "의료공백 문제는 단순히 올해에 그치지 않고 5년 이상 우리 의료시스템의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이 문제는 국민 공감과 동의가 선행돼야 한

다"며 "오늘 병원장들의 뜻깊은 행보가 국민 공감을 끌어내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살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의료계는 연일 권익위를 찾아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을 촉구 하고 있으나 권익위는 국민의 공감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산 자가진단 코로나 테스트 키트 판매 합니다. 개당 \$50”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23년 BMW와 함께 해온 전문가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브라이언 조
Brian Cho
Executive Client Advisor

 **BMW OF NORWOOD**
M CERTIFIED CENTER

2021년 신차 구매 및 리스
퍼포먼스 차량 전문 M-Certified 딜러
저렴한 럭셔리 중고차 브랜드 취급

Phone : **617.970.1073**
Email : bcho@driveprime.com

918-920 Providence Highway Route 1 <The Automile>, Norwood, MA 02062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계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중단치 않고 발행합니다.
두꺼운 얼음 밑에서 물은 끊임없이 흐르듯 모든 게 멈춘 순간에도 끊임없이
필수 정보를 전하고 한민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광고주들로 인해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 여러분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혹 여유가 되는 분들은 보스톤코리아를 도와주십시오.
보스톤코리아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체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Payable to : The Boston Korea

보스톤코리아도 어려운 광고주들을 돕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 **코리아**

후원금 기부자 (6월19일 현재)

김성혁 (한미정치혁신장연대)
무명 기부자 2명
김병국 (한미예술협회장)
한미예술협회
손광희
최홍균
황성미
모니카 리(이재영)
연세대학교 동창회
서울대학교 동창회
윤희경(보스톤봉사회)
필라모니아 보스톤
보스톤 뉴헤미야 인스티튜트
김희선
김한나 변호사
이길진
727 정전기념사업회(강경신, 김성혁)
김은한
권복태
사라 제럴드



성양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월요일: 아침 6시
화-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11시

본당 유튜브 채널주소:
QR 코드 스캔
<https://bit.ly/2JJ6ZdT>

미사는 본당 성전에서 모든 미사는 본당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합니다. COVID-19관련 신자분들 유의사항은 본당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급매 커머셜 건물

1층 식당 2-3층 아파트
최적의 은퇴투자
보스톤 북쪽 도시에 위치

연락처 : 978.494.2043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총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중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원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st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종교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공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골프 레슨



Master Golf Professional

최성조 프로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감추어도 느껴지는 대한민국 미소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는 대한민국 미소의 힘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른 소통의 자세로 나보다 남을 위해
따뜻한 미소를 지닌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코로나19 예방하기!!

- ① 함께있는 자리에 마스크 꼭!꼭! 해요.
- ② 손은 30초 이상, 자주 씻어주세요.
- ③ 기침이 나오면 옷소매로 가려야 해요.



오세경
전직 보스턴 의대교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의 명상 (2)

미국의 여류시인 에밀리 킨슨은 “내가 있음으로써 나와 내 주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내 인생은 가치 있는 것이었다” 라고 말했다. 미국의 교육자 호레스 맨도 “인류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 하였다. 그러면 80을 바라보는 나의 인생은 어떻게 결산할 수 있을지 점검해보려고 한다.

내 인생의 처음 20년은 세계 제 2차대전과 한국 동란, 그리고 두 차례의 혁명을 겪으며 한국에서 초등, 중고등, 그리고 대학을 마쳤다. 이후, 미국에 와서 석, 박사를 마치고 수년의 연수 끝에 1979년 보스턴 의대에 미생물학 조교수로 부임하게 되었다. 당시 보스턴 의대에 재직중인 교수진과 직원 2000명중에 동양인 교수는 오직 나 하나뿐이었다. 한국에서는 물론 미국에서는 더 더구나 꿈도 꾸지 못할 귀한 기회였다. 이렇게 어렵게 얻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재직 16년을 통하여 나는 별로 신통한 연구결과를 출산하지 못했다. 내가 별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 대하여는 여러가지의 변명이 있었다. 우선 내가 하고 있었던 단백질 화학이 어려운 학문인 것이 주된 연유였고 그 외에도 내 개인의 감정적인 상처로 인하여 나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 내가 교수로 임명된 지 얼마 안되어 나의 동생이 말기 유방암에 걸렸을 때 “우리 언니가 암 연구를 하고 있으니 나를 구해 줄거야” 하던 그의 소원을 들으며 내가, 아니 우리 모든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를 절감하게 했다. 그러나 암 치료에 혁신적인 공헌을 한 사람들도 많다.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연수를 마칠 때 내 책상을 물려준 나의 동료 제임스 피. 앨리슨 (James P. Allison) 박사는 암을 치료하는 항체를 개발하여 2018년에 노벨 의학상을 수여했다. 물론 이런 치료법이 없었을 때 암에 걸린 나의 동생은 아직 젊은 나이 (36세)에 사망했다. 그 외에도 내가 아직 대학원에 있을 때 나의 첫 사랑을 잃어버린 고독감까지 더하여 나는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았다. 더구나 내가 속해있던 미생물 학과는 교수진이 모두 유대인이었으므로 나는 유색인종,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차

별외에도 이방인의 차별까지 감수해야 했다. 피눈물나는 아픔이었다. 결과는 내가 드디어 학계를 떠나 기업에 종사하게 된 것이었다. 내가 일하던 회사는 진단시약을 개발하는 회사이었는데 입사후, 나는 여러개의 암 진단 시약을 개발한 후 심근경색 진단시약을 개발할 기회가 생긴 것이었다. 내 일생을 암 연구에 바치겠다던 내가 암 연구에서는 아무런 특유한 공헌을 하지 못했는데 심장병에 대하여 공헌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역설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단백질 화학을 전공하고 면역학을 연수 받은 나의 배경에 적절한 과제였다.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괴사된 조직을 검출하는 이 시약은 미국인들에게는 의 제1의 사망 원인인 심장병을 진단하는데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왔다고 한다. 시판된 지 22년이 된 이 진단시약 (c-Troponin-I test)은 지금은 전 세계에 보급되어 미국에서만 약 \$1 billion (1조원) 이 넘는 이득을 내고 있다고 하며, 이로 인하여 심장병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비율이 지난 50년 동안에 73%나 감소했다고 한다. 물론, 미국인의 식생활과 생활방식의 변화, 그리고 그 동안에 발달된 의학의 기술이 그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약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유익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불란서의 생물학자 루이 파스퇴르가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 고 하였던 말이 확증이 된 것이었다. 이러한 나와 내 팀들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이 시약을 쓰고 있는 회사는 그 높은 수익을 조금이라도 나와 내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기는 커녕, 내 공적에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조차 없다. 이런 것을 보면 개인의 능력을 착취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는, 자본주의 미국 대기업의 망령을 잘 알 수 있다. 시베리아에 유배되었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쏘련의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미국의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실망하여 다시 쏘련으로 돌아갔던 일을 이해하게 된다.

다행이라고 할까, 나는 과거의 교직 생활중, 나의 남편이 된 하버드 치과 대학의 석좌교수 Dr. Gerald Shklar 박사를 만나게 되었다. 불협

화음적인 내 부모님들의 불행한 결혼을 보고자란 나는, 내 이상에 맞는 남자가 없으면 혼자서 암 연구를 하다 죽겠다고 독신 생활을 고집한 지 30년만에 만난 사람이었다. 그는 오랜동안 외롭게 살아왔던 나를 잘 이해하고 모든 어려움에서 나의 편이 되어주었으며 때로는 내가 해낸 일을 부러워하기까지 하였으며 그는 내가 당신의 꿈을 이루어 주었다고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구강병리학의 개척자이고 또 이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였으며 50년의 학계 생활을 통하여 수천명의 치과 의사와 학자를 길러낸 교육자였다. 그는 또 온유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그의 50년 동안 교육생활을 통하여 한번도 음성을 높힌 일이 없었다고 한다. . 유달리 다양한 취미를 가졌던 나의 남편은 그의 일생을 통하여 350편의 논문과 5권의 치의학 교과서, 그리고 2권의 치의학 역사책을 출판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에는 오케스트라와 합연도 하였고 심포니까지 작곡한 음악가이기도 하였다. 내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훌륭한 인물이었다. 과연 그는 하늘이 나에게 보낸 특별한 선물이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흘린 한 줄기의 눈물은 이제 내 속에 슬픔의 강물이 되어 흐르고 그가 주고간 금강석 반지는 오늘도 영롱한 빛으로 상한 나의 가슴을 환히 밝혀 주고 있다. 그는 비록 멀리 떠나갔으나,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나의 모교, 그리고 나의 조국이 있다는 것이 이제와서 다시 홀로 가게 된 외로운 나의 여생에 많은 위로를 안겨준다. 내 남편이 남겨준 풍성한 유물로 인하여 내가 지난 5년 동안 나의 모교에 가서 의학 역사를 강의 할 계기도 된 것이다. 남편의 장서중 희귀도서 약 3,000 권은 이미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보관되었고 나와 내 남편의 금메달도 모교의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다. 나는 대학 졸업시에 서울대 총장상을 받았고 내 남편은 2015년에 남편이 작고하기 직전에 미국 치과학회로부터 전생애이룬 공로상 (Lifetime Achievement award) 을 수여받았다. 남편이 작고하신지 올해 5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나는 그의 유산을 정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1,2년은 더 걸려야 대강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나는 내가 문헌 산소와 나의 납골함, 그리고 유언장까지 마련했으니 이제는 죽는 일만 남아 있는 셈이다.

나는 또 우연한 기회에 내가 다니는 미국 교회 (Park Street Church)에서 우리 교회의 200년 역사를 기념하는 Bicentennial quilt를 제작할 기회가 있었다. 남편이 은퇴한 후에는 나도 일찍이 은퇴하여 우리 교회에서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를 가르치고 있을 때였다. 우리 교회는 미국에서도 유명한 역사적인 교회로써 부활절에는 약 3,000명의 신도가 출석하고 등록된 교인만도 1500명이나 되는 꽤 큰 교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quilt를 제작하는데 출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이 quilt의 도안이 2년이 넘도록 목사님 방에 방치되어 있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나의 학생중 일본인 11명, 중국인 교수한명, 그리고 또 한명의 한국인 학생들과 더불어 10주간에 걸쳐 제작한 Park Street Church Bicentennial Quilt는 지금 우리 교회 Welcome Center 에 전시되어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수많은 방문객들에게 이 교회의 자랑스러운 200년 역사를 과시하고 있다. 앞으로 적어도 90년은 더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지난 70여년의 인생을 돌아보면 나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의 삶이었다. 그러나 어떠한 기쁨도 슬픔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이런 것을 보고 영국의 시인 바이런경이 인생은 기쁨과 슬픔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와 같다고 했던 모양이다. 내돈 \$50을 들고 미국 생활을 시작했던 가난한 23세의 한국 소녀가 이제 80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으니 내 인생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실은 인생열차도 오잖아 종착역에 도착할 것이다.

부치는 말 : 나는 2003년에 내 일생을 그린 영어 자서전 “An American Odyssey” 를 출판했고 2004년에는 한국어로 된 자서전 “무지개를 따라서” 를 출판하였다. 2019년 6월에는 ‘자랑스러운 약대인’ 상, 그리고 같은해 9월에는 ‘서울대 발전 공로상’ 을 수상한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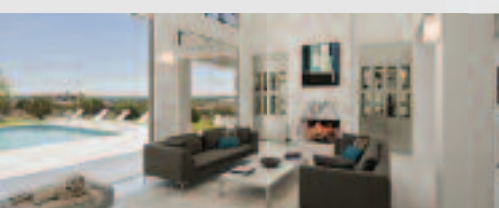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비전과 열정있는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보스턴 최고 한인 부동산 회사 Premier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는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bostonpremierrealty.com

275 Grove St. Suite 2-400
Newton, MA 02466



디아스포라 평화 공공외교

일시: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8시 (미 동부시간)

ZOOM ID: 861 0297 1313

Password: Bostonnuac



최광철 KAPAC 대표 및 민주평통 운영위원

최광철 KAPAC 대표 및 민주평통 운영위원 약력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 *오클라호마 주립대 경영대학원 MBA
-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 대표
- *민주평통 자문회의 운영위원
- *Bright Light Trading 대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턴 협의회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oston Chapter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제는 난리인데 왜 이리 집이 잘 팔릴까요?

이제 가을이고 Pandemic 도 7개월째다. 모든 비즈니스는 다 클로징 되었었고 사람들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데 나라에서 지원금은 누가 내는가? 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맥거야 할 것이다. 지난 7개월동안 부동산은 다시 절정을 이루며 최고에 집값으로 올랐다.

집이 하나가 나오면 오퍼 7-8개는 기본이다. 그럼 왜 이럴까? 아직까지도 낮은 이자율이 아주 큰 몫을 하고 있다. 집을 싸게 사는 것 보다 이자율을 낮게 얻는 게 계산상 더 이익이 된다. 3월부터 자택 근무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말이 자택 근무지 집에 한두달 있어 보면

지겹다. 살던 집도 작아 보이고 특히 식구들이 많은 집은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rental market은 호황이고 경제가 엉망인 이때 stock market보다 부동산에 투자들을 하시는 게 현실이다. 한 집이 나왔을 때 오퍼가 7-8개 기본으로 들어 가면 집을 살 수 있는 이는 한사람 그럼 7명의 바이어들이 남는다. 어느분이 나에게 물으신다. 내년에는 좀 나아질까요?

Inspection 그리고 모게지다. Inspection에 대해서는 바이어 에이전트와 잘 의논해서 빠시면 되고 100% cash가 없는데 어떻게 mortgage contingency를 빼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다. 경험이 많고 좋은 은행이나 랜더에서 일하는 모게지 하시는 분이 필요하다. 미리 서류를 넘기고 의논해서 mortgage contingency를 빼다. 이게 현실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다.



7명에 바이어도 집을 사려고 오퍼를 했을 것이다. 이들은 내년에도 사려고 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그럼 이 상황에서 집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 해 보자. 현실상 가격은 현재 나온 가격에 10% 올려야 살 수 있다. 내가 말하는 집들은 현 시세에 맞게 나온 집들을 말한다. Seller가 보는 건 물론 가격이 첫번째 다음은 아무 contingency가 없는 오퍼다. 집을 사려면 두가지 contingency가 있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10월 11일 - 10월 17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깨끗하게 받아들여야</p> <p>●운수: 지레 겁먹고 몸을 사리지 마세요. 미리 걱정하면 할수록 좋은 기회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금전: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하세요. ●애정: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신은 속이지 못하니 이제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스스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깨끗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3, 16일 길일. 12, 15일 주의.</p>	<p>소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p> <p>●운수: 미리 메모를 해놓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중요한 일을 까먹어 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금전: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에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행동하다가 손해 보기 쉽습니다. ●애정: 안 맞는 구두를 신으면 발에 상처가 나는 것처럼 안 맞는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면 상처를 입게 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1, 17일 길일. 12, 16일 주의.</p>	<p>범띠 긍정적인 에너지가</p> <p>●운수: 밝고 환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금전: 그냥 받은 것이 있으면 값어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식상입니다. 먼저 배풀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애정: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가가야 합니다. 상대가 사랑한다는 확신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순조롭게 진전될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5, 16일 길일. 11, 17일 주의.</p>
<p>토끼띠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p> <p>●운수: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한 더 나은 세계로 가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금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직관에 따라가 보세요. 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애정: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합쳐집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1, 14일 길일. 12, 15일 주의.</p>	<p>용띠 한번 만 더 생각해야</p> <p>●운수: 거대한 폭풍우도 시간이 지나면 그치고 날씨가 맑아지듯이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한 것도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금전: 돈을 쓰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세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과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애정: 같이 살면서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상처주고 상처도 받으면서 사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세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14, 15일 길일. 11, 13일 주의.</p>	<p>뱀띠 머지않아 좋은 기회가</p> <p>●운수: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견주어서 스스로를 힘있게 하지 마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금전: 가급적이면 변화를 주지 말고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머지않아 좋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애정: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세요. 겉으로 좋게 보여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3, 17일 길일. 11, 14일 주의.</p>
<p>말띠 아낌없이 먼저 베풀어야</p> <p>●운수: 지금 찾아온 기회를 꼭 잡아야 합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한동안은 다른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금전: 아낌없이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지금은 돈을 나가지만 인심을 얻으면 나중에 더 큰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애정: 말을 전할 때는 너무 세게 표현하지 마세요. 배려하는 마음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4, 17일 길일. 12, 15일 주의.</p>	<p>양띠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이니</p> <p>●운수: 내가 아는 것이 사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금전: 현실에 맞는 지출만 해야 합니다. 기본대로 쓰다가는 큰돈이 빠져나갑니다. ●애정: 가까운 곳에 두고도 쉽게 찾지 못해서 헤맬 수 있습니다. 본시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이니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11, 15일 길일. 12, 13일 주의.</p>	<p>원숭이띠 곳곳에 곡식이 가득 쌓이듯이</p> <p>●운수: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에 노를 저어야 앞으로 쪽쪽 뿜어나갈 수 있습니다. ●금전: 곳곳에 곡식이 가득 쌓이듯이 재물이 늘어나는 운세입니다. 투자와 관련해서도 좋은 기회가 들어올 것입니다. ●애정: 내 발이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줍니다. 느낌이 오거나 끌리는 대로 간 곳에서 좋은 일이 있거나 행운이 따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2, 16일 길일. 11, 14일 주의.</p>
<p>닭띠 누구라도 귀하게 대해야</p> <p>●운수: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아래 사람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가 누구라도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금전: 급하게 이루려고 하지 말고 서서히 쌓아가야 합니다. 속도를 줄일수록 중요한 것이 보이고 결국 자신에게 득이 됩니다. ●애정: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3, 17일 길일. 12, 15일 주의.</p>	<p>개띠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p> <p>●운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상관없이 물갈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금전: 당장의 이득 보다는 믿음을 주는데 신경 써야 합니다. 사람과 사이에 쌓인 신뢰는 언젠가는 빛이 나고 결실을 맺게 됩니다. ●애정: 새로운 것을 원한다면 과거부터 정리하세요. 현 가구를 다 빼내고 방을 비워두어야 새로운 가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4, 15일 길일. 13, 16일 주의.</p>	<p>돼지띠 다 뿌린 만큼 거두게 되어</p> <p>●운수: 여러 사람의 말을 듣다보면 더 헛갈리게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자기 주관대로 밀고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전: 당장은 바보같이 사는 것 같고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억울해하지 마세요. 세상이 치가 언젠가는 뿌린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애정: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과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13, 15일 길일. 14, 17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이베이 하시는 분 찾습니다
T. 617-678-5059

아리수 코리안 레스토랑
홀에서 일하실 분 구함
T. 978-466-8688

웨스터보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함께 일할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508-366-8898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선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헤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블랙핑크, 유튜브 구독자 5천만명 돌파 '러브식 걸즈'도 1억뷰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걸그룹 블랙핑크가 유튜브에서 구독자 5천만 명을 돌파하며 세계 가수 가운데 유튜브 구독자를 가장 많이 거느린 팝스타 저스틴 비버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5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유튜브 구독자는 전날 5천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 세계 대중음악 아티스트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치로, 블랙핑크보다 유튜브 구독자가 많은 가수는 캐나다 출신 팝스타 저스틴 비버(5천740만 명) 뿐이다.

2016년 8월 데뷔한 블랙핑크는 약 4년 만에 유튜브 구독자 5천만 명 고지를 밟게 됐다. 비버가 2009년 데뷔한 지 10년 만에 유튜브 5천만 구독자를 보유하게 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특히 지난 7월부터 빠르게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며 아리아나 그란데, 에미넴, 에드 시런, DJ 마시멜로를 차례로 추월했다.

YG는 블랙핑크가 신곡을 발표할 때



마다 수백만 명의 새 유튜브 구독자가 유입됐다며 "최근 3개월 사이 1천만 명이 늘었다"고 말했다.

블랙핑크는 앞서 싱글 '하우 유 라이크 댓', '아이스크림'을 내놨고 지난 2일에는 첫 번째 정규앨범인 '디 앨범'을 발매했다.

'디 앨범' 타이틀곡 '러브식 걸즈'(Lovesick Girls) 뮤직비디오는 공개된 지 75시간 만인 5일 오후 4시 20분께 유튜브 조회 수 1억 건을 넘어섰다.

역대 블랙핑크 곡 가운데서는 '하우

유라이크 댓', '아이스크림', '킬 디스 러브'에 이어 네 번째로 빠르게 1억 뷰에 도달했다.

선주문 수량만 100만장을 돌파한 정규 1집 '디 앨범'의 빌보드 성적에도 기대가 모인다.

'디 앨범'은 음원 공개 직후 미국을 비롯한 총 57개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에 올랐고, '러브식 걸즈'는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 '글로벌 50' 차트에서 3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박진영 "제가 쓴 곡 부를 분 찾아요"...노래 주인 찾기 프로젝트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히트곡 메이커이자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인 박진영이 미발표 자작곡을 부를 가수를 찾는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박진영은 지난 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진영 하드 대방출'이라는 이름으로 새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하드 대방출'은 말 그대로 박진영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에 담긴 곡을 JYP 소속 가수가 아닌 다른 가수나 일반인에게 선물하는 프로젝트다.

박진영은 "보통 저나 소속 가수를 생각하고 곡을 쓰는데 가끔은 아무 생각 없이 곡이 써질 때가 있다"며 "하드 드라이브에 쌓여가는 이 노래들의 주인을 JYP 밖에서 찾아보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rambo@yna.co.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보스톤코리아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중단치 않고 발행합니다. 두꺼운 얼음 밑에서 물은 끊임없이 흐르듯 모든 게 멈춘 순간에도 끊임없이 필수 정보를 전하고 한민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광고주들로 인해 말걸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 여러분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혹 여유가 되는 분들은 보스톤코리아를 도와주세요.

보스톤코리아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체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Payable to : The Boston Korea

보스톤코리아도 어려운 광고주들을 돕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editor@bostonkorea.com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761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수제마스크 팀'이 함께 모여 감사한 시간을...

지난 일요일(10/04/20) 오후에 뉴햄프셔 흑셋에 위치한 한미청소년프로그램(KAYP 대표/진태원) 장소인 가을 숲으로 뒤덮인 곳에서 'UMW 수제마스크 팀' 감사 모임을 가졌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United Methodist Women 회장/김지영)에서 코로나 19를 시작으로 3월부터 '수제마스크' 도네이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들 중심으로 12명 정도 팀이 구성되었다. 그렇게 시작해 8월까지 6개월 간의 열심과 열정과 감사로 열악한 환경의 주변 주민들과 해외 과테말라, 하이티에까지 '수제마스크' 도네이션이 사랑의 띠에 묶여 전달이 되었다.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다.

Covid-19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당황스러운 시작이 아니었던가. 지금도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이번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손발이 묶인 형상이지 않은가 말이다. 죽어서만 천당. 지옥을 만나는 것이 아님을 새삼

느낀 것이다. 멀리에 있는 가족은 그렇다 하더라도 가까이 사는 사랑하는 내 가족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고 따뜻한 포옹마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내 가까운 친인척을 잃고도 문상마저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 된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음을 알고 살지만, 아직도 무엇인가 확실치 않은 코비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견디고 이겨내며 살아야 할지 미지수이다. 그저 각자가 서로를 위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청결과 거리 두기를 잘 지키며 모두에게 희소식으로 다가올 백신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은가. 다만, 새 학년 새 학기를 준비하며 설렘과 반가움으로 가득했었던 아이들에게 무거운 숙제 거리만 등에 짊어진 가방에 가득 담아준 것 같아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만 가득하다.

졸업을 하고도 친구들과 마음껏 서로에게 축하의 시간을 만끽하지 못한 아이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다. 며칠 전 친한 친구의 막내아들이 대학 졸업을 했는데, 특별히 졸

업 사진이 없어서 가족들과 함께 집 앞 뒤뜰에서 졸업 촬영을 한 것을 내게 보여준다. 그 사진을 보면서 마음 한편이 아파져 왔다. 나도 그런데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많이 서운하고 섭섭할까 말이다. 이 어려운 시기까지 금은 힘들고 버겁더라도 잘 견뎌내고 이겨내어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을 때 더욱 더 단단하고 튼실한 삶의 디딤돌이 되길 기도한다.

지난 것들은 모두가 추억이 된다는 말이 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견뎌내면 정말 추억이 될 수 있을까. 그래 우리는 늘 모두가 경험하지 못한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하며 선택하며 순간을 살아간다. 지금의 이 시간마저도 무엇이 나와 내 가족과 친구들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그저 우리는 각자 맡겨진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결국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결정이며 나의 삶인 까닭이다. 어쩌면 나만이 겪는 일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아니면! 그렇다, 모두가 함께 이겨내고 견뎌내야 할 우리 모두의 삶의 과제인 것이다.

코비드-19로 온 세상이 시끄러울 때 2020년 3월을 가만히 생각하면 '수제마스크'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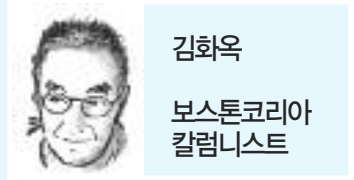
를 시작으로 6개월여 동안 바쁘고 보람되게 보냈다. 남들은 집 안에 있어 우울하다고 느낄 때 우울을 느낄 틈이 없었다. UMW 외에도 다른 한인 협의회에서도 '수제마스크'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그곳에도 담담을 맡겨져 더욱더 바쁜 생활을 했다. 남편과 아들도 곁에서 응원하고 박수로 후원을 아끼지 않아 힘과 용기가 되어 감사했다. 우리는 결국 혼자 가 아님을 다시 또 깨닫는 시간이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내가 있는 우리 말이다.

이렇듯 그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수제마스크 팀'이 함께 모여 이야기보따리를 하나둘씩 풀어내며 감사한 시간을 가졌다. 뉴잉글랜드의 멋지고 아름다운 숲속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UMW 김지영 회장과 부군 되시는 한미 청소년프로그램(KAYP) 대표 진태원 회장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함께 모인 이들이 음식과 다과를 한 가지씩 준비를 하여 맛나고 풍성한 감사의 모임이 되었다. 붉게 물든 단풍 나뭇가지 사이 노을이 서늘으로 누울 때쯤 함께 모인 자리 가운데 모닥불이 슬슬 오르기 시작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꽃자리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지면을 통해 밝힌 적이 있다. 꽃비(雨)란 말을 좋아한다고 말이다. 그런데 어디 꽃비 뿐이라. 꽃이 들어간 말은 모두 예쁘다. 게다가 꽃은 향기를 뿜어낸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생성과 성장과 소멸의 과정은 같다. 하지만 식물은 씨앗이 싹이 터서 잎과 줄기가 자란다. 이어 꽃이 피어 열매를 맺고 다시 씨앗을 낳는다. 세대를 잇기 위함이다. 과정은 경이로운데, 꽃이 피고 지는 건 천연하며 장렬하기도 하다.

꽃샘(시샘)이란 말은 차갑지만 매섭게 아름답다. 또한 꽃가마도 있을 것이요, 꽃구름도 있다. 꽃길, 꽃방석이고, 꽃시름도 있나니. 꽃게도 있고, 꽃등심도 있다. 한국어는 분명 꽃을 무척 사랑하는 언어임에 틀림없다. 심지어 등심에도 예쁜 이름을 줬으니 말이다. 꽃내음이요, 꽃그늘인데, 꽃에 무얼 붙여도 향기로운 거다. 꽃이라고 그늘을 만들지 못하는 법은 없다. 꽃으로도 그늘이 진다는 말인데, 목월의 목련꽃 그늘은

향내가 난다. 한편 구상 시인도 꽃을 찾았고, 꽃자리에 앉았다. 그의 시 한편이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앓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앓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앓은 그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구상, 꽃자리)
한국에서 꽃자리는 낮지 않은

자리 일게다. 고대 중국 어느 시인이 읊조렸다. 꽃밭에서 말을 타니, 말굽에서 향기가 난다. 꽃밭에서 말을 탈 정도면 꽃자리에 앉아 있음에 틀림 없다. 하지만 말투는 짓꽃고, 취미치고는 악취미이다. 말굽에 움푹패인 꽃밭은 보기도 심히 흥할 테니 말이다. 심지어 앓았던 꽃밭자리에도 자국은 남을 텐데, 꽃은 여지없이 뭉개질 게다. 바라건대, 부디 꽃밭에서 말을 타지 마시라. 꽃이 망가진다. 꽃자리는 꽃자리인데, 말타는 꽃밭은 아

니다.
꽃은 봄에 핀다. 뜬금없이 가을에 꽃이야기를 꺼냈다. 가을은 꽃이 되었던 씨가 새로운 열매를 맺는 계절이다. 미국에선 곧 선거가 있다. 한 살이 끝났다는 말인데, 이번엔 다른 씨앗을 뿌릴 건가. 그 씨앗이 무슨 꽃을 피울 것인가. 가을엔 국화를 봐야 그럴듯 하다.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누가 12:27)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성형외과

성형에 대한 불안한 마음, 휴람이 책임지겠습니다!

휴람 성형이벤트 지금 이용해보세요!
 상담 · 예약 · 안전하고 퀄리티 높은 수술 ·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보호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한 차원 높은 의료 서비스 휴람

상안검 or 눈썹거상술 187만원 154만원~	하안검 + 지방재배치 187만원 154만원~	안면거상술 +목거상 880만원 660만원~			
이마 거상술 495만원 330만원~	코 성형 363만원 264만원~	지방이식 +PRP 330만원 220만원~	가슴성형 660만원 550만원~	지방흡입 220만원 ~	이물질 제거 110만원 ~

HURAM
성형이벤트
 아름다움을 만드는 곳



“ 정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디테일
 환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체크하는 디테일
 풍부한 경험으로 올바른 개선책을 찾아내는 디테일
 수준 높은 세포치료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디테일
 안정적인 마취를 통해 더 좋은 수술결과를 이끌어내는 디테일 ”

휴람 네트워크 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반재성 대표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바노바기성형외과		최순우 대표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유성형외과		노성훈 대표원장 카이스트의과대학 졸업 남산호성형외과		김용규 대표원장 연세대 석/박사 졸업 YK성형외과
	김태현 대표원장 의과대학 졸업 라폼성형외과		최원혁 대표원장 경희대 의과대학 졸업 드림라인클리닉		정경인 대표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시너지성형외과		박재현 대표원장 의과대학 졸업 린스뷰티메디칼그룹



김수남
 하의의료사업담당

617.949.1766

카카오톡 010.3469.4040 / ID: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행성 뇌질환 알츠하이머성 치매, 피 한 방울로 조기발견 길 열려

치매 인구는 2014년 61만 명에서 10년 만에 100만 명으로, 2041년에는 2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전망이다(치매 유병률 조사 2012)이다. 80세 이상 노인 인구 4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게 되는 것이다. 그중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전체 치매 인구의 50~8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치매의 원인이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는 다양한 영역에서 인지 기능 장애를 보이는데, 서서히 증상이 진행하기 때문에 무증상 단계에서 조기 발견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 된다.

이번 주 휴람에서는 휴람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의 도움을 받아 퇴행성 뇌질환 알츠하이머성 치매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뇌의 노화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이 뇌 속에 침착해 치매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가장 확실한 진단

방법은 뇌척수액검사와 아밀로이드 양전자 단층촬영(PET)이 있다. 하지만 이들 검사는 침습성과 높은 검사 비용으로 인해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 치매 조기 진단의 걸림돌이 됐다.

최근 혈액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임상연구를 통해 증명됐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병원 신경과 윤영철 교수와 연구팀(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상윤 교수, 가천대학교 바이오나노학과 안성수 교수, ㈜피플바이오)은 ‘알츠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로서 혈장의 아밀로이드-베타 올리고머화: 블라인드 검사 연구(Blood Amyloid-β Oligomerization as a Biomarker of Alzheimer’s Disease: A Blinded Validation Study)’를 발표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뭉쳐 있는 것을 멀티머 혹은 올리고머라고 하는데, 베타 아밀로이드의 올리고머를 측정하는 것이 알츠하이머병을 예측하거나 예후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윤영철 교수 연구팀은 혈액 속에 있는 아밀로이드의 뭉치는 성질을 이용하여 알츠

하이머병 환자 52명과 정상인 52명의 혈액에서 ‘아밀로이드-베타 올리고머화 정도’를 검사하였다.

그 결과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베타 아밀로이드 올리고머화 정도값은 1.43ng/ml이고, 정상인은 0.45ng/ml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값이 정상인에 비해 높았다. 더욱이 임상치매척도(CDR)에서 증세가 경미한 초기 단계에서도 수치가 각각 1.46ng/ml, 1.53ng/ml을 나타내어 정상인(0.45ng/ml)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 연구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올리고머화 진단법이 알츠하이머병을 예측하는 민감도는 100%였으며, 특이도는 92%의 높은 결과값을 확인했다. 또한 양성인 경우 아밀로이드 펫 (amyloid PET) 검사에서도 높은 양성률을 보여, 베타 아밀로이드 올리고머화 진단법이 임상적 판단에 따라 치매환자 진료 시 치매선별검사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병원 신경과 윤영철 교수는 “이번 연구에 사용된 베타 아밀로이드 올리고머화 진단법을 기반으로 한 진단키트를 올해 안에 국내 상용화할

예정”이라며, “향후 치매 진단뿐 아니라 병의 경과를 반영하는 모니터링(monitoring)의 바이오마커로서의 가치도 염두에 두고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임상 연구로 임상시험수탁기관인(주)서울CRO가 주도하여 분당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논문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SCI급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병 저널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JAD)’ 75권 2호에 게재됐다.

“퇴행성 뇌질환 알츠하이머성 치매”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화로 변경)

*전상품 1년 약정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99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YOUTUBE

\$34.99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영화/성인, YOUTUBE

\$39.99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말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597) 예측할 수 없는 주식시장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새해의 부푼 희망이 사라지기도 전에 세계적인 질병(Pandemic)이 시작되었다. 고국인 대구에서 코로나의 암울한 소식으로 마음을 졸이게 하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급격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2020년을 시작하며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코로나로 모든 상점과 식당이 문을 닫고, 실업률은 하늘 높은지 모르게 치솟고, 주식시장은 대폭락하고, 경제는 대공황 이후 겪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팬데믹으로 수백만 환자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수십만의 사람이 사망하고 있다. 그야말로 난리 중에서도 난리이다.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주식시장은 폭락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새해 들어서 주식시장(S&P 500)이 13번이나 새로운 최고점을 달성하더니, 2월 말에는 최고점인 3,386.15를 기록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역대 기록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32%나 대 폭락한 것이다. 이 시점에는 투자자 대부분이 불안과 공포로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러던 주식시장이 8월 18일 새로운 최고점 3,389.78을 다시 기록한 것이다.

바다를 항해하던 한 투자자가 거센 풍랑을 만나 배가 좌초된 후 어떤 무인도에 7개월 생활하고 가까스로 구조되었다.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다시 돌아온 투자자는 그동안 투자했던 소중한 돈을 확인해 본다.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6% 상승한 것을 확인하고 그동안 주식시장에 전혀 변동이 없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2018년 온 가족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시점에 주식시장이 20%나 폭락했다. 그 후 4개월 만에 다시 회복되었다. 원점으로 돌아온 주식시장은 2019년 한 해는 31%로 놀랍게 상승했다. 지구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혹은 주식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는 매우 민감하지만 지나간 날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주식시장이 20% 하락하면 베어마켓(Bear Market)이라고 한다. 곰이 상대방을 공격할 때 날카로운 손으로 내려치기에 베

어마켓이라고 하는 것이다. 1926과 2009년 사이 베어마켓은 25번이 있었다. 길게는 400일 그리고 짧은 기간은 62일이 지속하였다.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불마켓(Bull Market)이다. 황소가 상대방을 아래에서 위로 뿔로 받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같은 기간 불마켓은 26번이 있었다.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36%가 폭락했다. 그러나 상승했을 때는 무려 112%나 급등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주식시장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지만 결국에는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일반 투자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급작스럽게 폭락하는 주식시장이 아니라 상승하는 주식시장에 내 돈이 투자되어 있지 않은 것을 더욱 두려워해야 한다. 역세계운(?)이 좋아서 폭락하기 전에 시장에서 팔고 나왔다고 해도 다시 들어가는 시점을 놓치면 결국에는 더욱 큰 손실이라는 뜻이다.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폭은 하락하는 폭보다 항상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투자자는 그 이유와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

직일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인터넷도 열심히 찾아보고 신문과 방송 뉴스에 눈을 귀를 집중한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방송 매체에 집중하다 보면 무엇인가 결정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로 마음이 다급해진다. 그야말로 떨어지는 칼을 손으로 잡는 절박하고 위험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인도에 몇 개월 머물다가 돌아온 사람은 많은 투자자가 경험한 마음의 고통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여진함, 중국과의 갈등, 대통령 선거, 급격하게 너무 올라간 주식시장, 등을 생각하면 주식시장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할 것이다. 이럴 때마다 일어나는 마음의 불안은 성공하는 투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투자자는 투자하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Risk)을 각각 인식해야 한다. 투자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전체 위험성을 인식하면 어떠한 주식시장 변화에도 근심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식시장의 높은 수익을 꾸준히 받는 것이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18세 풍월주風月主 춘추공春秋公(2)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다. 삼국사기의 기록만 보면 김유신이 환갑의 나이에 태종무열왕(김춘추)의 딸인 지소공주와 결혼한 기록만 나오는데, 화랑세기를 통하여 이미 김유신이 10대의 나이에 미실의 손녀인 영모를 아내로 맞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5세 풍월주는 보종이 아닌 김유신에게로 이어졌다. 이때 대원신통 계열의 낭도들이 적지 않은 불만을 토로했지만, 태후 만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고 또한 김유신의 위용을 감당할 낭도들이 없었다. 612년에 풍월주의 위치에 오른 김유신은 어린 김춘추를 부제로 삼았다. 김춘추는 602년생이니 당시 만 10세였다.

약 3년 후 16세 풍월주는 보종에게로 이어졌다. 부제였던 김춘추가 어리기도 했지만 보종을 따르던 대원신통계의 낭도들을 끌어안아 화랑의 화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부제는 염장이 임명되었다. 보종이 약 6년간 풍월주를 역임하였고, 그 다음 17세 풍월주는 염장에게로 이어지면서 염장도 약 6년간 풍월주의 위에 있었다. 염장이 풍월주에 있을 때는 김흠순이 부제가 되었다. 김흠순은 김유신의 동생이다. 그리고 김춘추가 24세인 626.7년에 18세 풍월주로 취임하였다.

문무왕 김법민이 626년에 태어났으니 당시엔 진평왕이 재위하고 있었고, 덕만(선덕여왕)이 공주 시절이었다. 그리고 김춘추가 풍월주에 오르기 이전 김유신의 계략으로 춘추는 유신의 동생 문희를 만나 사랑을 하고 둘째 부인

으로 맞아드리는 장면이 화랑세기에서 이어지고 있다. 화랑세기에는 김춘추에 관한 기록이 비교적 짧다. “왕의 대업은 사책史冊에 있어 여기에는 기록하지 않는다”는 김대문의 기록으로 봤을 때 당시에 많은 기록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화랑세기에는 위의 인용문과 같이 그의 외모와 성격, 의지 등과 이어지는 내용은 김유신의 동생 문희와 결혼하게 되는 사연과 장소, 그리고 간략한 세계世系가 기록되어 있다.

김춘추는 문희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부인이 있었다. 16세 풍월주를 역임한 보종의 장녀 보라가 김춘추의 첫 부인이었다.

김춘추의 첫 부인 보라의 기록은 삼국사기에는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김춘추의 장녀 고타소가 문희의 소생으로 게다가 김법민(문무왕)의 동생으로 나오는데 화랑세기의 기록에 보면 고타소는 첫 부인 보라의 소생이고 법민보다 먼저 태어났다(문무왕 김법민은 626년생이다). 화랑세기의 기록이 설득력을 얻는 데는 고타소의 죽음으로 봤을 때 분명하다. 때는 642년, 벼슬이 이찬(2등급)에 오른 김품석이 대야성의 도독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고타소 역시 남편과 함께 대야성에서 살았다. 그때 백제의 장군 윤충이 1만의 군사를 이끌고 대야성을 침공했다. 이에 부하 검일은 적군과 내통하고 창고에 불을 지른 후 백제군에 항복했다. 그러자 민심은 흥흥해지고 군사들의 사기는 떨어졌다. 부하 서천은 항복을 권유했고, 화랑 죽죽

은 결사항전의 각오로 항복을 만류했다. 김품석은 항복하면 살려준다는 말을 듣고 항복했으나 속임수에 빠진걸 금방알고 처자를 죽이고 자살했다. 그러자 화랑 죽죽은 남은 병사들을 모아 성문을 닫고 대항했지만 결국 대야성은 함락되었고 죽죽은 부하 용석과 함께 전사하였다. 이 기록으로 봤을 때 고타소가 법민의 동생이라면 당시 그녀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야 15세이다. 15세에 결혼은 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이미 자식(들)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랑세기의 기록으로 보면 김춘추가 문희와 사통하여 임신을 시켰고도 결혼을 망설인 것은 이미 부인 보라가 있었고, 게다가 당시 가장 미인 중의 한명이었다는 보라를 닮은 딸 고타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춘추가 602년생이기에 아마도 고타소는 623년경에 출생한 것으로 추측해본다. 검일은 왜 품석을 배반했을까? 그는 사랑하는 부인을 품석에게 빼앗겼기에 이미 원한을 품고있다가 윤충이 쳐들어오자 적과 내통했다. 검일은 함께 투항한 모척과 함께 660년 백제 멸망 후 서비성에서 신라군에 의해 처형되었다. 문무왕 김법민은 백제의 태자 부여용에게 모욕을 주면서 누이고 타소의 고훈孤魂을 달랬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 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 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화랑세기에 기록된 춘추공조의 첫 부분을 인용하면,

[18세 춘추공은 우리 무열대왕이다. 얼굴이 백옥과 같고 온화한 말로 말을 잘했다. 커다란 뜻이 있었고 말이 적었으며 행동에는 법도가 있었다. 유신공이 위대한 인물로 여겨 군공으로 받들었으나, 무열왕이 사양하여 부제가 되었다. 유신공이 퇴위했으나 보종과 염장 양공이 있었기에 왕은 양보하여 기다렸다. 이에 이르러 풍월주에 오르니 보령이 24살이었다. 유신공의 누이인 문희文姬를 화군花君으로 삼아 장자인 법민法敏을 낳았는데 곧 우리 문무제文武帝이다.]

603년 김호림이 14세 풍월주에 취임하였다. 그리고 보종을 부제로 삼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만호태후의 명으로 15살의 나이로 화랑에 입문한 김유신을 부제로 삼았다. 즉 화랑도의 2인자인 부제의 자리를 미실의 아들인 보종(아버지는 설원왕)에서 김유신으로 교체하였다. 그리고 만호는 미실을 위로하기 위하여 미실의 손녀 영모(하종의 딸, 하종은 미실이 세종과 낳은 아들이다)와 김유신을 혼인시켰

보스톤 전망대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컬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여자만의 왕국, 아마존〉

스키타이 민족은 BC 10세기에서 BC 2세기 까지 중앙아시아와 흑해, 알타이에 이르는 광대한 초원을 주름잡던 세계 유목민으로 이란과 인도 아리안계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잘 알고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은 이들을 "스키타이"나 "사카"로 호칭해 왔는데 이말의 뜻은 아주 평범하게 활을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스키타이는 예전부터 너무나도 잔인하고 호전적인 민족으로 알려져 있었다. 전쟁 포로의 가족으로 망토를 만들었고 포로의 두개골을 도금해서 술잔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역사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헤로도토스가 스키타이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실제로 이 물건들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수급을 더 많이 달고 다니는 전사가 더 많은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잔인했던 스키타이는 성경에서도 언급된다.

예레미아서 6장 23절에 "그들은 잔인하고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용함 같은 자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항오를 벌이고 말 시운 너를 치려 하느라 하시도다."

이처럼 잔인했던 스키타이족이 여인들로만 이루어진 아마존과 맞닥뜨린 것은 이미 알려진 사건이었다.

스키타이가 중앙 아시아를 떠나 서쪽으로 이동할때 흑해 부근에서 아마존이라는 여인 부족의 완강한 저항을 받게 되었다. 한바탕 싸움 끝에 스키타이가 승리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살당한 아마존의 시신에는 모두 바른쪽 가슴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히랍 말로 유방을 마조스(majos)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a"를 붙여서 부르면 아마조스(amazones)가 되어서 이말은 유방이 없는 여자라는 뜻이다.

기원전 1세기때 시칠리아 출신의 역사학자 디오도로스(Diodorus Siculus)가 그의 저서 역사 총서(Bibliotheca Historica)에 기록하기를 아마존 여인들은 어린 시절에 오른쪽

가슴을 불에 지져 없애 버렸는데 그 이유는 여인국의 전사로 성장해서 활을 쏘야 하는데 오른쪽 가슴이 활을 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없애 버렸다고 하였다.

로마 줄리어스 시저와 삼두정치를 함께 한 폼페이우스(BC 105~48)를 따라 당시 종군했던 테오파네스라는 작가가 아마존 족이 살고 있던 곳을 찾아본 기록이 있다.

아마존은 용감하고 말을 잘 탔는데 어렸을 때 모두 오른쪽 유방을 절제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아마존은 여자 전사들로만 편성된 부족이기 때문에 자손을 남기기 위해 종종 이웃의 남성과 정을 통하여 아기를 낳았다. 사내가 태어나면 죽이거나 불구를 만들었고 오로지 여자 아이들만 길렀다. 봄이 되면 두달동안 남자들로만 이루어진 가르가리안(Gargarean)과 산으로 올라가 결합했다고 한다. 출산 후에는 여자아이는 엄마가 키우지만 사내아이는 Gargarean에게 양도했다고 한다.

아마존은 스키타이와 함께 최초로 바지를 입기 시작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그리스 그림에 보이는 아마존 여전사들이 바지를 입고 있다. 말타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바지를 선호하게 된 것이다.

훗날에 흉노 사람들은 옷속으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발목에 다님을 매게 되었다고 한다. 다님은 원래 흉노말이었는데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님으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터기 에베소에 있었던 아르테미스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으뜸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아마존이 건축했다고 전해져 왔다. 아르테미스 신은 아마존과 처녀들의 수호신이었다.

로마의 역사학자 플리네우스의 의하면 이 신전은 BC 700년 경에 홍수로 완전히 파괴되었고 세번째로 건립되었는데 지금은 잔해만 남아 있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때 묘사된 아마존 여전사

아마존네스들은 초승달 모양의 방패를 들고 다녔는데 그 이유는 아르테미스가 달의신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마존이 창을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창이 남근을 상징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무기는 활이 주무기였고 사카리스라고 부르는 양날 달린 도끼를 사용했다고 한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용감하고 막강한 아르테미스 신은 남자와의 대결에서 항상 이기고 또 잔인하기도 한 여신이였다. 또한 여자의 처녀성과 순결에 흠집을 내는 남자를 가차없이 처단하는 무서운 신으로 아마존의 숭배를 받아왔다고 한다.

자신의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본 테베의 왕자 악타이온을 사슴으로 변신시켜 자신의 사냥개로 하여금 물어 뜯어 죽게 하였다고 한다.

고대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BC 484~425)에 의하면 스키타이와 아마존이 서로 만나보니 강한 상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이 자식을 공유하게 되면 더 강한 전사가 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스키타이와 아마존이 낳은 후손들이 "사르마트"라는 민족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사르마트 여인들은 남자와 함께 사냥도 하고 전투도 함께 했는데 여자들은 전투에서 적을 한명 이상 죽이기 전까지는 결혼을 할 수 없어서 노처녀로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도 사르마트 여인들은 아마존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했다고

한다.

현재 중앙 아시아 곳곳에는 1000여기가 넘는 아마존과 스키타이 사람들의 유골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유골들이 전상을 입은 여성들의 유골이었다고 한다. 아마존과 스키타이가 함께 매장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회에서는 신라금관과 닮은 사르마트 금관, 아마존과 일리아드, 트로이 유적지를 소개한다.



고대 후기에 묘사된 아마존 여전사, 스키타이가 최초로 바지를 입었음



초승달 모양의 아마존 여전사 방패



NAMU • 나무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 금메달리스트
대통령 훈장 수훈/15년 이상의 경력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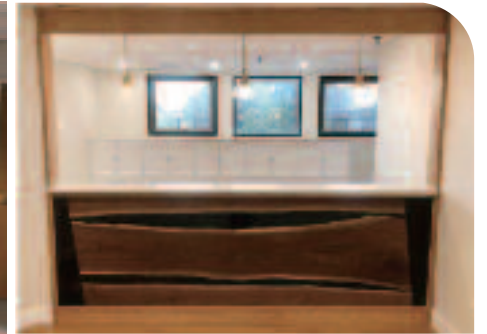
- 주방, 욕실, 방, 베이스먼트 리모델링
- 집, 상점 레노베이션
- 커스텀 캐비닛, 바닥, 데크
- 원목 테이블, 가구

WHY NAMU

- ✓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 ✓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 ✓ 철저한 시간 약속과 빠른 공사



BEFORE



AFTER



무료
견적상담

www.namuma.com
info@namuma.com / 617-775-4771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MA 전지역, NH 일부지역 공사)

국궁 양궁 연습

국궁 양궁 연습에 초대합니다

코비드 19로 위축된 우리 청소년들과 가족들을 Open Air 로 초대 합니다.
현재는 Session 마다 최대 5 가족만 함께 활 쏘며 기술을 배우고 연마합니다.
서로 3 meter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며 활을 쏘며, 활과 화살을 사용 전후
소독해서 사용합니다.

미리 전화나 이메일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6월 13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 강습과 연습 시간을 정했습니다.

오후 2:00- 3:30, 3:30-5:00 (토1, 토2, 일1, 일2)
원하는 Session을 예약하세요. 활과 화살을 제공하며,
강습과 연습은 모두 무료입니다.

10분전 까지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장소: 596 Hooksett Rd, Auburn NH 03032
예약: taewon.jin@Gmail.com, 603-205-6679
주관: KAYP Youth program, director Taewon Jin

